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V.2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기획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누구나 누리는 공동육아 연구모임'

2015년 집필진

박현숙 대전시립 뿌리와새싹어린이집 원장
윤우경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국장
이경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송지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아이돌봄분과
이태경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원장
진선경 마포구립 성미어린이집 원장

2019년 집필진

박현숙 대전시립 뿌리와새싹어린이집 원장
이말순 서대문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원장
이태경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원장
정영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국장
진선경 마포구립 성미어린이집 원장
최경민 시흥시립 배곧호반어린이집 원장

이 안내서는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아이돌봄분과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의 후속 개정본입니다.

차 례

Ⅰ. 사회적 육아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 1
1. 사회적 육아란? ····· 1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 4
3. 지역의 생활 생태계와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의 관계 ····· 9

Ⅱ.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준비 ····· 14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과정 ····· 14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유형 ····· 15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5
2)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9
3)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 19
4) 위탁받은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위탁체를 변경하는 경우 ····· 21
3. 위탁체의 역할 ····· 24

Ⅲ.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방향 ····· 26
1. 어린이집 개방 ····· 26
2. 참여보육 ····· 31
1) 부모 참여 ····· 31
2) 참여보육의 다양한 내용 ····· 33
3. 협력적 교사회 ····· 47
1) 협력적 교사회란? ····· 47
2) 협력적 교사회의 필요성 ····· 48
3) 교사회 구성 ····· 53
4) 협력적 교사회의 성장 과정 ····· 55
5) 협력적 교사회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 ····· 56
6) 교사회 활동 ····· 59
7) 교사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 69

[표]

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 ····· 15
표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들의 협력관계 ····· 17
표 3.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협력 구조 ····· 26
표 4.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공개 방법과 내용 예시 ····· 30
표 5. 교사회 역할 분담 예시 ····· 55

[그림]

그림 1. 사회적 육아 실현 주체 ····· 2
그림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 5
그림 3.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동체 원리 ····· 8
그림 4. 지역과 연결된 어린이집의 모습 ····· 9
그림 5.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준비 과정 ····· 16
그림 6. 어린이집과 위탁체의 협력 구조 ····· 16
그림 7.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받는 경우 ····· 20
그림 8. 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력 체계 ····· 21
그림 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21
그림 10. 위탁받은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체를 변경하는 경우 ····· 22
그림 11. 어린이집 개방의 방향 ····· 30
그림 12. 참여보육을 통한 부모와 교사 관계 맺기 ····· 31
그림 13. 어린이집 교육활동 참여 ····· 33
그림 14. 어린이집 운영 참여 ····· 33
그림 15. 참여의 단계 변화 - 양육 주체로서의 부모 성장 ····· 33
그림 16. 교사-아이-부모 관계의 변화 ····· 49
그림 17. 협력적 교사회 문화의 필요성 ····· 51
그림 18. 협력적 교사회의 성장과정 ····· 56

[참고]

어린이집 운영 주체들이 할 일 ····· 13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자! ····· 13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 ····· 17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 22
부모 참여, 어떻게 준비할까? ····· 37
뿌리와새싹어린이집 부모회 구성 사례 ····· 39
부모회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 43
건강한 공동체 생활 문화를 위한 고려점 ····· 45
협력적 교사회를 이끌기 위한 교사회 일원으로서의 원장의 자리 ····· 52
세미나를 통해 성장하는 교사회 사례 ····· 57
청소 상황의 갈등 사례 ····· 68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 성장체계' 모형 ····· 70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교육 사례 ····· 71

Ⅰ. 사회적 육아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1. 사회적 육아란?

1) 왜 사회적 육아인가?

양육 주체인 부모,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사회적 돌봄 주체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아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양육 환경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할 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사회적 육아' 또는 '공동육아'라 한다.
- 공동육아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보편적 돌봄의 지향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 사회적 육아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이 사회의 과제인 육아의 어려움과 보육 체계의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 아이와 어른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 사람들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육아'와 '보육의 공공성'을 기본에 두고 육아 문제를 논의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고립 육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보육 현장은 시장 중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육아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육아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는 여전히 검토 과제이다.

2) 사회적 육아를 실현하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1) 가족 : 가족은 사회적 육아의 중심에 서서 양육을 책임진다.

- **양육 주체는 부모** :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가 자신이 양육 주체임을 깨닫고 아이를 돌보는 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옳다.
- **아이와 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 핵가족사회, 고립된 가족의 생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고강도 장시간 노동환경, 조손가정 증가 같은 현실로 볼 때 부모만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게 되었다.
- **아이를 함께 키우는 생태계** : 보통 저출산 문제로 아이의 양육 문제를 바라본다. 이런 시각도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아이와 가족의 삶이란 면으로 다가가는 시각이 더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한 아이를 위한, 한 가족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 자세로 다가가자.
- **서로 믿고 함께 키우기** : 부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육 주체로서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생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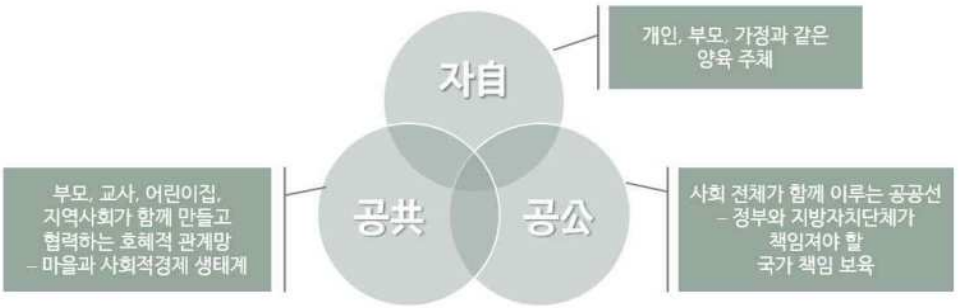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육아 실현 주체

(2) 공동육아 : 가정과 교사, 지역사회가 사회적 육아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

- **공동육아를 보육 현장에서 가장 잘 실현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 협동조합(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보육의 필요를 충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이와 부모, 교사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다.

○ **참여보육** : 부모와 교사가 주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보육이다. 부모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참여화의 방향이 사회적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는 '열린 어린이집' 정책 같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 참여와 함께 교사들의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참여가 강화되는 참여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은 1994년 서울 지역에서 처음 설립된 이래 2018년 말 현재 7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곳은 40여 곳이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참여 보육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형이다. 부모, 교사, 졸업생, 지역주민 등이 출자한 협동조합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사회적 육아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결합한 공동 운영체이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부모 참여'와 '협력적 교사회'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 **'협동어린이집' 제도화** : 정부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부모 참여가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성과를 인정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에 '부모협동어린이집(현재 협동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유형을 신설하였다. 2018년말 현재 협동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0.3%를 차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0.3%를 돌보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부모 참여와 교사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한다.

○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와 어른들**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안정적인 지역 경제와 문화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 중심의 지역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가족들, 교사들은 마을 사람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며 공동체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3) 국가 책임 보육 : 국가가 사회적 육아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진다.

○ **확대되는 국가의 양육 지원** : 국가 책임 보육은 2005년부터 보육 정책에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 제도가 도입되었고, 정부의 보육 예산은 팽창되었다.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시장 중심의 보육 체계를 국공립 중심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아지면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해지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면서 보육 체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 **보육 전달체계 강화** :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육아 정보 공시 제도, 교사 관리, 누리과정, 어린이집 평가제, 재무회계 관리 같은 보육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정책들을 시행했다.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결합하기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의 국가 책임 보육과 사회적경제의 민주적 공동체 원리를 결합하여
'사회적 육아', '공동육아'를 실현하는 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처음 시도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면서 운영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향점과 장점이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살펴본다.

1)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적경제 주체·조직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줄인 말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좋은 보육 모델을 실현하는 어린이집이라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유연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와 교사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교육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구조로 발전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은 시민이 협동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를 키워 왔다. 특히 돌봄, 육아, 먹을거리 같은 일상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체적 사회 기풍과 문화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비중이 낮아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동안 자율적이고 사람 중심인 민주적 공동체 원리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적경제 운영원리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부모와 교사의 참여와 자율성이 높아지고 마을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집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아이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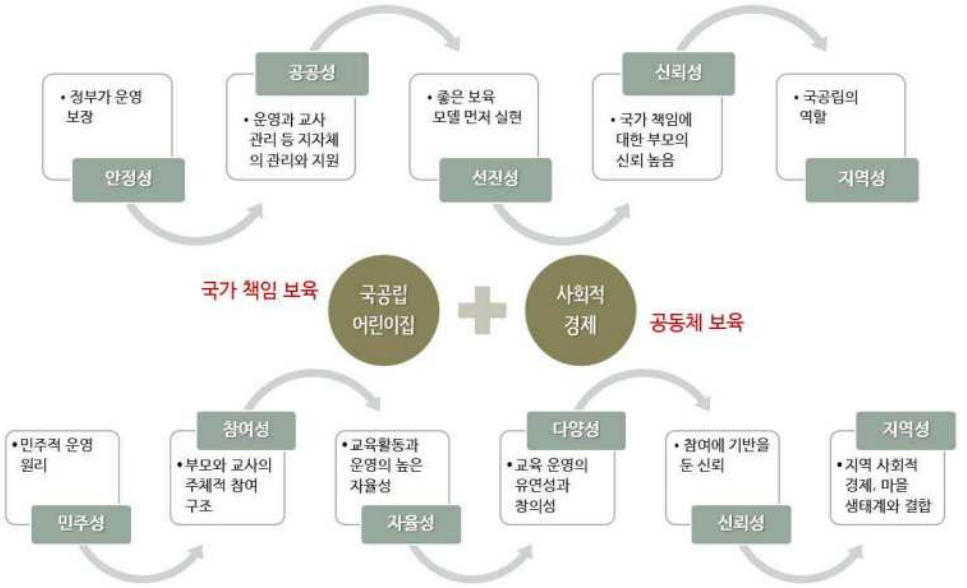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2)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까닭

: 보육의 가치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결합하는 운동

사회적경제가 만들어 가는 사회적 육아운동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며,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길이다.

(1)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이 사회 안에서 넓혀 나간다.

❍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과,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모들이 출발점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아이들의 바람직한 대안적 사회화와 어른들의 재사회화를 함께 추구하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 문화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

(2) 부모와 교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가려는 사회 개혁 운동이다.

❍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꾸려 가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부모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양육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한다.

❍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노동권을 확보해 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노동환경을 제안하는 운동이다.

(3) 사회 전체가 공동체 원칙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변화를 이끌어 낸다.

❍ 육아의 영역에서부터 무한 경쟁 체제와 모든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해 인권을 보장하고, 자연 파괴를 막고, 환경을 지키고, 물과 공기와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지켜 가는 생활을 한다.

❍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오늘의 현실에서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길을 찾아본다.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는 모델이 된다.

❍ 공공성을 실현하는 위탁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보육의 모델 만들기, 일-가정 양립, 참여보육, 노동조건의 개선, 지역사회의 거점 활동 활성화 같은 국공립어린이집 본래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 국가 책임 보육과 참여보육을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5) 지역사회의 돌봄 관계망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마을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활성화한다.

3)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할까? : '서로 믿고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1) 국가가 운영을 보장하는 안정된 어린이집

○ 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즐겁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 교사들의 노동환경은 안정되고, 운영 참여는 활성화된다.

(2)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동체 원리의 생활화

○ 어린이집 정보와 공간의 개방

- 부모가 어린이집의 교육과 생활 계획, 그리고 활동을 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정보와 공간 접근성을 확보한다.

○ 부모가 주체로 참여

- 부모는 부모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아이의 양육 주체로 성장한다.
- 협동조합에서 부모는 조합원(생산자)과 부모(소비자), 어린이집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 부모는 어린이집 운영과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권자로서 참여한다.

○ 협력적 교사회

- 교사들은 교사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협력하면서 어린이집을 자아실현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 협동조합에서 교사는 조합원(생산자)과 교사(직원), 나아가 후원자(마을 사람)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고 조합과 운영의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여 보육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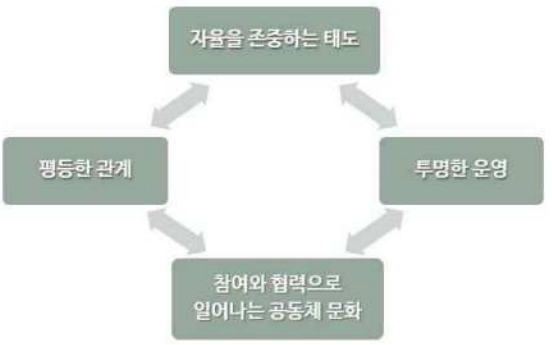


그림 3.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동체 원리

(3) 아이, 부모, 교사의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 보육의 장

- ❍ 아이, 교사, 부모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의 인권을 적극 실현
- ❍ 아이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 없애기
- ❍ 교사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교사의 건강권 · 휴식권을 보장하며,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 없애기
- ❍ 부모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의 생활과 노동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육 환경 만들기
- ❍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는 상호 돌봄의 관계망 만들기,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협동적 공동체 문화가 녹아 있는 관계 만들기
- ❍ 부모, 교사, 원장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소통 문화

(4)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익혀 가는 아이들과 어른들

- ❍ 어린이집이 마을에서 공동체적이고 건강한 사회 문화를 일상으로 익혀갈 수 있는 생활 거점이 된다.

3. 지역의 생활 생태계와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의 관계

: 지역과 연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의 일상 활동과 교육활동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마을 활동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마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살아난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집 생활과 연관된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4. 지역과 연결된 어린이집의 모습

1) 생태적 삶이 확산된다

(1) 친환경 급식

○ 사회적경제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며, 계절에 어우러지는 세시절기 문화에 맞춘 먹을거리 문화를 활용한다.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친환경 먹을거리로 음식을 한다. 어린이집

과 가정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 생활협동조합(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거나, 텃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로 음식을 만든다.

-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은 지역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관계를 맺어 어린이집 활동 속으로 끌어들인다. 나아가 생협 조합원으로서 어린이집과 가정은 아이들을 위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먹을거리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발언력을 높일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텃밭 활동은 아이들에게 순환하는 계절의 흐름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도록 한다. 어린이집 텃밭에서 마을 텃밭으로 활동을 넓혀 가면서 지역 도시 농업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도시 농업이 확산되면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아름다워지고, 일상의 공간이 생태적으로 변한다.

(2) 생태적 어린이집 건축

- 어린이집을 태양에너지나 물 절약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고 생태적 건축자재로 생태 건축을 한다면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생태적 생활을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활성화되면 어린이집 생태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
- 어린이집이 아이들 가정과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거나, 생태·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생태 전환 마을 활동을 함께할 수 있다.

(3) 친환경 놀잇감과 생활용품

- 어린이집에서는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교재·교구와 놀잇감, 그리고 생활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필요한 좋은 물품을 대줄 곳이 부족하다.
- 스스로 만드는 수공예 문화의 확산과 친환경 놀잇감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를 만들 토대가 생긴다.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린이집의 일상용품을 대주는 영역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안정된 친환경 생활문화를 구성할 수 있다.

(4) 일상적 지역사회 나들이

- 아이들은 마을의 자연과 시장, 도서관 같은 모든 생활공간으로 나들이하면서 마을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런 나들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연과 놀이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촉구할 수 있다.

❍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 자전거도로, 쉴 수 있는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 도심 구조물을 집 안의 가구나 예술품처럼 장식하는 디자인 기법), 작은 공간들을 만들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지역사회 환경 재구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공공미술 활동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도시재생 활동을 할 수 있다.

2) 지역의 공동체성이 커진다.

(1) 머물러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정주성)

❍ 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어 출생률이 높아진다. '공공형 조산원'이 의료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활성화된다.

❍ 계속 집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주택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한다. 마을에 협동조합형 주택이 늘어난다.

(2) 사회적 돌봄이 확대된다

❍ 아이들은 성장한다 : 초등 돌봄의 필요성 대두

-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마을방과후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놀며 배우며 쉰다.
- 지역의 자원을 모아 만든 네트워크형 마을학교에서 초·중·고등 아이들이 놀면서 자신을 탐색한다.
-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부모들은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육아 품앗이의 필요성

- 육아휴직 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양육을 선택한 엄마, 아빠들은 마을에서 품앗이로 만든 육아사랑방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육아기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간다.
- 어린이집 아이들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생긴다.

❍ 생활 속의 다양한 협동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어린이집의 주치의가 되고, 가족의 주치의가 된다. 조합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을 돌보고, 다양한 건강 강좌를 들으며 올바른 건강의식이 생긴다.
- 다양한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과 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돌봄노동의 가능성을 만드

는 밑바탕이 된다.

- 지역사회 속에서 부모님을 함께 돌보는 지역형 생활 돌봄 체계를 만든다.
-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가, 노인 돌봄을 하는 협동조합의 노인 요양사 같은 협동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참여한다.

3) 사회의 혁신성이 높아진다

(1) 노동환경이 개선된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된다.

○ 일-가정 양립과 부모들의 양육 참여를 위한 육아휴직제 같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어린이집은 공동체 분위기에서 품앗이 돌봄이 활성화된다.

(2)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

○ 사회적경제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소비가 늘어난다.

○ 모여 사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들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생활을 조화롭게 이루고자 한다.

○ 친환경 비누와 생활용품 만들기, 빵과 떡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와 두부 만들기 같은 신선한 음식 제조, 세상을 좋게 만드는 매체(미디어) 만들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함께 사는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일 따위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협동 사업체들이 만들어진다.

(3) 주민자치력이 높아진다

○ 마을 사람들은 협동조합 같은 자치조직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실행력이 높아 마을공동체가 활발해진다.

○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사회적 시민'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간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들이 할 일

- 교사는 아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을 반영한다. 교사가 지역사회를 알고 있어야 교육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 부모는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지원한다.
- 위탁 법인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마을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 활동의 흐름을 공유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자!

- 어린이집의 안정화는 조합원들의 정주화로 나아간다.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시민, 자원봉사 영역에서 펼쳐 내는 지역사회 활동에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서비스의 협동화, 사회적경제를 축으로 하는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많아질수록 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 간다. 어린이집에서 협동하는 삶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꿈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은 스스로 마을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시민으로 성장해 간다.
-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협동적 삶을 배우는 교육장이다. 그동안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 대천마을, 대구지역, 고양·파주 지역, 과천 지역처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오래되고 조합원이 계속 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를 잘 말해 준다.
- 연대와 협력 속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율과 자치의 시민적 공공 영역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일상으로 익혀 갈 수 있다.
- '아이 부모, 교사, 마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은 사람들의 필요와 열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돌봐 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이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Ⅱ.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준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과정

- ❍ 위탁 공고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 ❍ 위탁 기간 :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신청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한 운영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다.
- ❍ 취약보육 실시 조건 :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 위탁 신청 서류 : ①어린이집 위탁신청서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 위탁 심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한다. 집합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앞에서 대표자와 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기준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유형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 협동조합(소비자생협, 신협 등),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형



그림 5.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준비 과정

(1) 위탁 준비 과정

①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에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인에 '돌봄사업단' 같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보육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② 위탁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지역 선정을 위한 '보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검토해서 확충 계획이 있고 돌봄의 필요성과 주민의 요구가 많은 곳, 조합원의 활동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③ 이사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결의한다.

④ 돌봄사업단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⑤ 위탁 공고가 나면 서류를 갖추어 위탁 신청을 한다.

⑥ 위탁체로 선정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⑦ 개원하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개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원을 위한 준비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⑧ 위탁 개시일 또는 개원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2) 어린이집 운영 구조

❍ 어린이집과 위탁체의 협력 구조 만들기 : 원장·교사회가 중심이 되어 위탁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위탁체의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탁체와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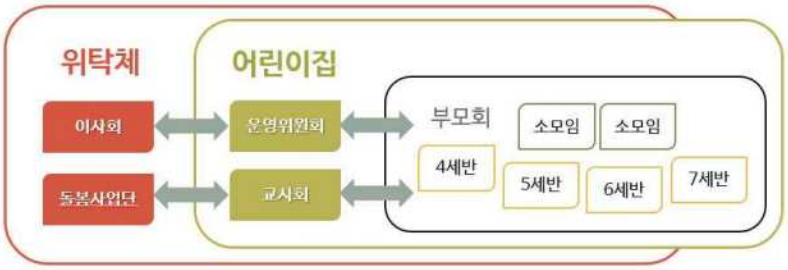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집과 위탁체의 협력 구조

구분	내용
돌봄사업단과 어린이집 원장(교사회)의 정기회의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일상적 논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위탁 법인 이사회의 협력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 상시 공유 및 협의, 승인
위탁 법인 정기총회	◆ 어린이집 연간 계획안, 예·결산안 검토와 승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위탁체 대표, 부모 대표, 원장, 교사 대표, 지역인사, 마을 사람(조합원) 등으로 구성 ◆ 분기별, 또는 어린이집 필요에 따라 임시 개최 ◆ 부모회, 교사회의 활동과 논의 사항 공유 ◆ 어린이집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협력 지원
어린이집 부모회	◆ 부모 참여를 위한 제도 장치 ◆ 부모회 총회, 방모임, 소모임 따위로 구성 ◆ 어린이집 교육활동과 교사회 지원 ◆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 할 일 찾기
협력적 교사회	◆ 개별 교사가 아닌 '교사회'로 바라보기 ◆ 교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장'의 역할 세우기

표 2.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들의 협력관계

○ 어린이집 협력 구조 만들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사회, 부모회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간다.

○ 구성원들과 위탁사업 내용 공유하기 : 위탁체의 구성원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을 수 있으므로 위탁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린이집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

위탁 운영 어린이집 : 경기도 광명시립 신촌어린이집

- 아동 정원 : 29명 (0세 5명, 1세 10명, 2세 14명)
- 보육 유형 : 영아 전담 보육
- 위탁기간 : 2010.12~2014.10.(4년)
- 재위탁기간 : 2014.11~2019.02.(5년)

한살림생협의 강점 반영 :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 영아 부모와 인근 어린이집에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식생활 문화 개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한살림서울생협 이사회에 마을 사람과 지역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보 공개로 투명한 운영
- 생태 활동을 중점 시행하여 한살림의 '생명 살림' 가치를 반영한 보육 실현

협동조합 운영 경험을 살린 민주적이며 투명한 운영

-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연 4회 이상, 부모·마을사람과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반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한살림서울 이사회의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평가와 계획(예산) 함께 수립, 본부(법인 실무)-지부(조합원 활동 연계)-어린이집 일상 소통

① 신촌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한살림 지역 조합원 대표(지부장)와 담당 실무자 참여**
- 어린이집 운영 함께 논의
- 생태, 식생활 교육, 부모 참여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협업과 지원 논의, 물품과 인력 지원, 식단표 제공 따위

② 한살림서울생협 이사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내용 상시 공유 및 승인**

- 월 1회 운영 내용 공유와 계획 공유, 일상 소통
- 연말 평가와 계획 : 운영 평가와 계획, 예산서 검토, 조합원 대표와 함께 운영 계획과 예산서 승인

③ 한살림서울생협 총회

- **한살림서울생협 대의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공유 및 승인**
- 연 1회(2월) 평가와 결산, 계획과 예산안 검토, 승인
- 연 1회(8월) 중간보고를 통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 부모, 어린이집(원장, 대표교사), 지역사회위원(엔지오NGO 대표), 마을 사람(조합원), 한살림서울 이사회, 한살림서울생협 총회 등에서 공통 논의로 평가와 계획

위탁체의 지원과 역할

❍ 법인 전입금 지원

- 어린이집 개원할 때 보조금
- 어린이집 평가인증할 때 보조금
- 어린이집 급 · 간식 보조금(친환경 유기농 물품으로 안전한 급 · 간식 제공 목적)
- 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보조금

❍ 법인과 일상 소통 ·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 지원과 네트워크

- 법인과 공통으로 어린이집 평가와 계획 수립
- 어린이집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회의 진행(통합 운영회의, 전체교사회의)
- 신규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추진단 운영
- 어린이집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보완과 개선
- 법인 기획부 돌봄기획팀 일상 소통과 지원

❍ 지부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활동 연계 지원

-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때 물품과 인력, 자원봉사자, 차량 등 지원

❍ 보육 교직원 교육과 지원

- 교사 연수 : 생산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과 인력 지원 (단오잔치, 대보름잔치 등)
- 신입 교사 교육 : 협동조합 이해, 한살림 어린이집의 이해 따위
- 전체 교사 교육 : 한살림 식생활 교육, 주요 사안에 대한 기획 교육(부모 참여)

2)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 ❍ 지역사회에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경우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 ❍ 이 경우에는 조합의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이사회와 어린이집 원장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조합원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구성원들에게 어린이집 위탁 사업의 필요성과 활동을 끊임없이 공유하도록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 마을 사람들이 보육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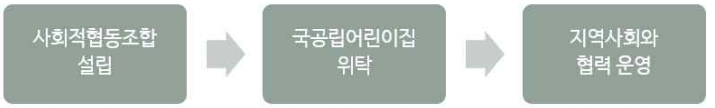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받는 경우

(1)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 단체가 연대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보육과 관련된 지역의 여러 조직, 단체, 마을 사람들은 물론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육아를 함께한 경험과 협동, 참여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운영 구조 또는 활동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그러나 참여 조직과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 구조와 협의와 협력이 일상화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인 교사회·원장과 협력 구조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조합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다양한 자원을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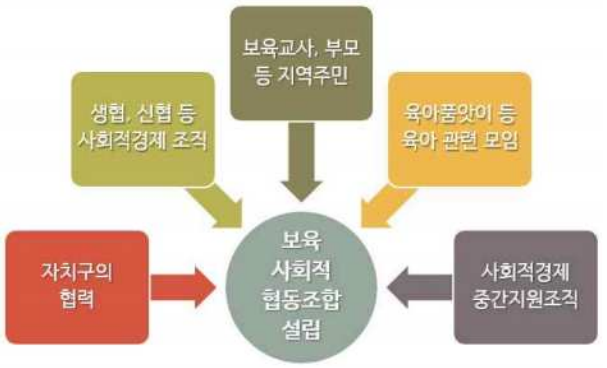


그림 8. 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협력 체계



그림 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2)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지역에서 육아를 함께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부모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게 큰 장점이다.
- ❍ 그러나 육아를 함께한 경험은 있으나 협동조합, 어린이집 같은 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과정이나 어린이집 운영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설립할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원받는 게 필요하고, 원장·교사회의 전문성과 결합하고, 부모들과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 ❍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보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그러나 이 경우는 부모 스스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교사회와 부모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칫 조합원의 참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조합 설립 준비와 함께 보육에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도 함께하도록 한다.

4) 위탁받은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위탁체를 변경하는 경우

: 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체를 전환하는 경우



그림 10. 위탁받은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체를 변경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의 조건으로 '일정기간(개원 후 1년 이내)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위탁체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 어린이집에 등원 중인 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고 기존 위탁체와 지역주민들이 후원자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설립을 준비하게 되면 부모들이 보다 더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장중심의 운영구조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꾸준한 학습과 교육,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합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 위탁체와 원장은 부모와 교사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 참여의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협동조합 설립 전에 먼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 참여 활동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위탁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위탁체에서는 설립 지원을 위한 팀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설립에 관련된 교육, 토론회, 설립과정,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준비 등을 원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준비하도록 한다.

○ 협동조합 설립 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체를 전환하는 과정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기존 위탁체와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회, 그리고 자치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해서 위탁체를 전환하도록 한다.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과정을 계획한다.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설립 목적 : 서울시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위탁 운영

설립 취지 : 공동육아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부모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육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타 공익사업 등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 만들기
-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 관계 만들기, 함께 성장하기
- 마을 사람과 후원자들도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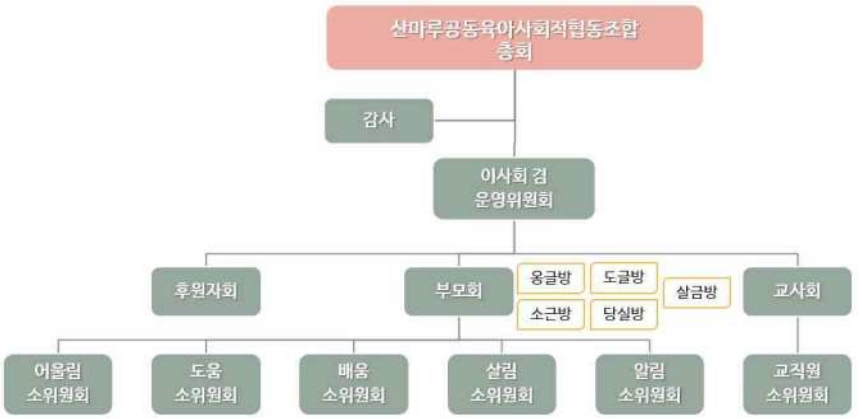
구분	내용
2013년 10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위탁체 선정
2014년 4월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개원
2014년 5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명회
2014년 8~11월	교사회, 운영위원회 학습
2014년 9~11월	협동조합 소모임
2014년 11월	부모·교사 전체 교육
2014년 11월	대기자 설명회
2015년 2월	발기인회 구성
2015년 3월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2015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2015년 10월	법인 설립 등기
2016년 9월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체 변경

산마루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구분	교육 주제
교사회	◆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 ◆ 참여보육,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 체계
운영위원	◆ 사회적협동조합 로드맵 정하기

구분	교육 주제
부모	◆ 놀잇감 만들면서 친해지기, 함께하는 즐거움 느끼기 ◆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경험담 듣기 ◆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현장 방문
교사회, 부모, 운영위원	◆ 참여보육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대기자	◆ 사회적협동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 보육의 공공성을 건강하게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조직도



3. 위탁체의 역할

1) 위탁체의 역할

○ **수탁 어린이집이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목적과 의미, 특징'을 잘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수탁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보육을 국가와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 공동체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가치를 반영한 어린이집 수탁 목적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 협력적 교사회 같은 모델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한살림서울생협은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영아·부모·가까운 어린이집에 식생활 교육 효과로 식생활 문화 개선, 생태 활동 중점 시행으로 한살림의 '생명 살림' 가치를 반영한 보육을 실현하려고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꾸리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체와 어린이집의 일상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 **위탁체가 수탁 어린이집 부모 대상으로 부모 교육, 설명회 들을 지원할 수 있다. 위탁체가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 보육 관련 내용을 부모·교사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위탁체의 지향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가치 들을 어린이집 부모·교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결산 자료를 해마다 점검하도록 한다. 재정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편이므로 필요할 때 원장과 논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축, 개원하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경우 개원 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초기 준비금(자치구의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 교사회비, 교사 교육비 같은 비용 필요)을 법인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한다.

○ **'사회적경제 영역'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 위탁체와 어린이집의 협력 구조

○ **위탁체와 어린이집의 정기적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위탁체와 원장은 일상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위탁체가 일방으로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원장 개인에게 맡겨진 어린이집이 되지 않도록 위탁체와 교사회는 일상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과 운영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 일상 소통과 함께 달마다 정기 보고와 회의 구조를 마련한다.

○ **수탁 어린이집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사이의 회의가 필요하다.** 원장회의, 원감회의, 교사모임 같은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목적과 지향을 서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탁체는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기적(분기별)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부모, 교사, 지역 운영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발간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 참고) 위탁체 담당자도 위탁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위원들과 소통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위탁체	◆ 원장의 실질적인 파트너 ◆ 어린이집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직, 간접으로 어린이집 지원 - 교사 교육 - 어린이집 원장 운영 방안과 제반 사항 지원 (연구모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협동조합 설립 실질적 지원
지자체	◆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지원 - 재정, 인적자원 지원
원장	◆ 아이를 중심으로 교사회, 부모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조직하고, 관계 문화를 구성하는 실천적인 지도자
교사회	◆ 생활에서 부모와 만나고 아이를 키우는 관계 교육 실천가
운영위원회	◆ 부모들의 관계 및 부모회 협력/협의 체계 만들기 지원

표 3. 서대문구립 산마루어린이집 협력 구조

Ⅲ.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방향

1. 어린이집 개방

어린이집 개방과 참여보육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적 교육 가치 지향
교육 3주체(아이, 교사, 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보육
지역사회의 돌봄 관계망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거점

1) 어린이집 개방이란

(1) 개방의 필요성

최근 어린이집에서 '열린' 또는 '개방'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보육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의 '공공성'이 기본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둘째, 시대적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이 어떻게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로 '열린'과 '개방'이라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2) 개방의 목적

❍ **구성원들의 신뢰감 형성**

-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보육사업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서로 입장이 다른 원장, 교사,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방식을 만들고, 다양한 운영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두 주체인 부모와 교사들이 갖고있는 '불신' 또는 '부적절한 어린이집 운영'에서 '신뢰받고 투명한,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 부모와 지역사회는 어린이집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운영 내용 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어린이집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참여보육의 주체인 부모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원장은 부모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객관적인 눈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한때 한 면만 바라보는 '문제적 시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제 해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 **가정 - 어린이집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돌봄의 거점 만들기**

-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지역사회를 서로 잘 연결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점 구실을 해야 한다.
-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부모 같은 인적, 물적 환경을 보육을 중심으로 한 '협력자' 또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개방의 내용

(1) 운영 내용

❍ 공개 방법 : 결산 공시, 가정통신문이나 식단, 부모 오리엔테이션, 식자재 업체 선정과 특별활동 선정 결정 구조 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따위

❍ 공개 내용

-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 영·유아의 건강, 영양
- 안전과 학대 예방 사항
- 보육 시간과 보육 과정의 운영 방법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사항 따위

(2) 어린이집 공간

어린이집 공간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방하는가에 따라 내용과 목적을 조금씩 달리 한다.

❍ 목적 : 부모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실생활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공간 개방 방법

- 등·하원 때 교실을 개방하여 부모가 자연스럽게 영·유아의 생활공간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일정 기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부모 참여 활동을 위해 개방하기

○ 공간 개방의 목적을 공유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 규칙이 없으면, 교육활동이나 교사-영유아들의 상호작용이 방해받거나, 부모의 단편적인 시선이나 오해와 갈등 때문에 혼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불안하고 산만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 공간을 개방할 때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방해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지켜야 할 수칙과 목적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규칙에 적극 협조한다.

(3)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방의 목적

- 부모들은 연간계획안 및 월간계획안, 식단 등을 보면서 어린이집과 담당 교사의 교육 방향을 이해하며, 무엇보다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다.
-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나 손이 부족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실행할 수 있다.
-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인적 물리적 한계를 확장해 교육과정을 풍요롭게 한다.

○ 교육과정 개방의 방법

-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반 모임'이다. 달마다(또는 격월) 교사와 부모가 모여 아이들의 생활을 이야기 나누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학습하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을 연결한다.
- 부모 참여 활동을 통해 부모들은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정보 공유 : 가정통신문, 알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
- 텃밭 활동이나 급식에 부모가 참여하기
- 어린이집 행사와 일상 활동에 도우미로 참여하기
- 부모나 마을 사람들의 '재능 기부' 활동

3) 어린이집 개방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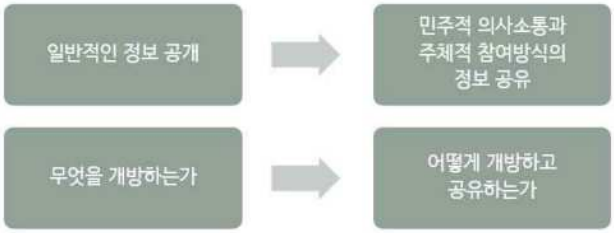


그림 11. 어린이집 개방의 방향

❍ 국공립어린이집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에 더해 민주적 의사소통과 주체적인 참여 방식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 무엇을 개방하는가보다는 어떻게 개방하고 공유할 것인가를 더 고려하도록 한다.

구분	방법	내용
정보 공개	▪ 결산 공시 ▪ 가정통신문 ▪ 부모 오리엔테이션 ▪ 식자재 업체 및 특별활동 선정에 참여 ▪ 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예결산 ▪ 영·유아의 건강, 영양 ▪ 안전과 학대 예방 사항 ▪ 보육 과정의 운영 ▪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교육 과정	▪ 방모임 (매월 혹은 격월) ▪ 가정통신문, 알림장, 인터넷 홈페이지 ▪ 텃밭 활동 ▪ 급식 참여 ▪ 어린이집 행사 ▪ 일상 활동에 도우미로 참여 ▪ 부모나 마을 사람들의 '재능 기부' 활동	▪ 교사와 부모가 함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생활 나누기 ▪ 육아 고민 나누기 ▪ 역동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을 연결하기 ▪ 공동육아 학습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 이해
공간	▪ 등하원시 교실 개방 ▪ 부모 참여 활동	▪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기회 마련

표 4.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공개 방법과 내용 예시

4) 어린이집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어린이집 개방

❍ 원장과 교사회가 목표와 방식 정하기

-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인 원장과 교사회가 어떤 목표로, 무엇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충 분히 이해해야 한다.
-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그 뜻이 살아난다.

❍ 공개에 대한 어린이집 참여 규칙 세우기

- 참여 규칙은 어린이집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다.
- 참여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일교사 활동을 할 때 단편적으로 일과를 경험하고 '다른 아이'에 대한 일화나 평가를 다른 부모들에게 전달할 때는 의도하지 않게 해당 부모와 교사회는 곤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목적과 달리 참여가 아닌 부모 개인의 요구에 따른 평가와 참견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교사에게 업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 운영위원회가 부모들과 함께 참여 규칙과 방식 공유하기

- 운영위원회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정보 공개 내용과 방식을 안내하고, '참여 규칙'을 부모들과 공유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 정보 공개의 목표와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들의 어린이집 개방 과정과 참여 규칙 평가하기

- 개방 참여 경험을 평가하여 더 나은 방식으로 규칙을 수정 보완한다. 개방 시행 중에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1년을 마무리하며 교사회와 부모회에서 평가를 나눌 수도 있다.
- 운영위원회가 의견을 모아 참여 규칙을 수정 보완해 간다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다.

2. 참여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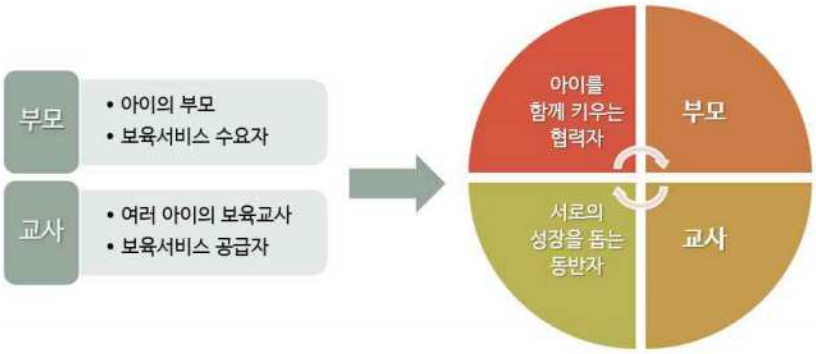


그림 12. 참여보육을 통한 부모와 교사 관계 맺기

1) 부모 참여

- 부모 참여는 개방성을 확보하여 기관과 부모가 내용과 과정을 공유, 공감하는 활동에서부터 점차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는 형태까지 모두를 다루고 있다.
- 각자 현실적인 어린이집 인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판단해 봐야겠지만 부모회의 자치활동은 참여보육에 있어 무척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시도해 보고 있는 참여방식은 어린이집이 주축이 되어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참여와 연대활동을 진행해 왔다면 부모회 또는 조합 형태로 구체적인 단위조직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참여를 확장시키는 것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축이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부모회'라는 또 다른 축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일의 공적인 책무과 권리를 갖는 주체가 부모회와 어린이집이라는 공적인 개념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부모 욕구 중심의 일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고 말거나 어린이집 안에서의 생활이 가정과 연계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교육적 환경을 바로 잡아 '보육'의 책무를 두 축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단계를 너머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스스로 당면한 육아의 어려움 및 다양한 부모 성장의 욕구 등을 스스로 읽어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모들의 능동성이 생겨날 때 궁극적인 참여보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위 참여보육의 확장성은 현실적으로 드는 첫 생각은 부모들의 이기적인 자치활동으로 어린이집 운영 또는 교권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면이 있고, 가지각색의 교육관과 지향이 다

양한 부모들이 모여서 공적인 자치활동을 꾸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너무 힘든 과정은 아닐지, 한다 하더라도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한 조직 방향과 목적을 추구하며 성숙하게 완주할 수 있을지 다양한 우려가 들게 되는 면이 있다.

- 현재의 우려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이고 오히려 해보면 해볼수록 부모가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협력자가 되어 교사들의 교권이 확립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이 생겨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관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출발점에서 아래에서 제안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는 제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 부모 참여의 다양한 방식과 확장성은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점진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요소가 있으므로 각자의 어린이집에 맞는 인적, 문화적 환경에 맞게 시도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거나 선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3. 어린이집 교육활동 참여



그림 14. 어린이집 운영 참여



그림 15. 참여의 단계 변화 - 양육 주체로서의 부모 성장

2) 참여보육의 다양한 내용

(1) 어린이집 교육과정 참여 활동

①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일년에 한번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는 어린이집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어린이집의 교육목적과 방향을 부모와 공유하고 연계하여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교육 운영 및 영유아 개별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세부 목적별 교육과정 참여 활동 분류

<table>
<tr><th>목적</th><th>예시 활동</th><th colspan="2">참여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8">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참여</td><td>요리활동</td><td colspan="2">김장하기, 저장음식 만들기, 화전 만들기</td><td></td></tr>
<tr><td rowspan="4">각종 행사
(잔치*)</td><td>단오
잔치</td><td>• 부모회가 행사 주관
• 연령별로 부스 마련
• 부모와 교사회가 마련한 마당극 공연
• 아이,어른이 함께 하는 강강술래</td><td rowspan="5">모든
부모
참여</td></tr>
<tr><td>개원
잔치</td><td>• 마라톤대회 응원(영상 메시지)
• 메달 만들기
• 전래 놀이마당 참여
• 전래음식 만들기(국시꼬랭이)</td></tr>
<tr><td>해보내기
잔치</td><td>• 아이들 공연
• 연령별로 준비하는 부모공연
• 아빠회 공연</td></tr>
<tr><td>대보름
잔치</td><td>•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길놀이
• 소원지 쓰기
• 달집 만들고 태우기</td></tr>
<tr><td>일일교사</td><td colspan="2">• 정해진 시간 일일교사 역할,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 돕기(텃밭 만들기, 퇴비 넣기 등), 나들이 함께 가기</td></tr>
<tr><td>대청소</td><td colspan="2">• 어린이집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기,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애착의 과정</td></tr>
<tr><td>방모임*</td><td colspan="2">• 월 평가서 읽고 아이들 생활 이해하고 궁금한 것 질문하기,
아이들의 노래, 놀이 배우기, 다양한 정보 교류</td></tr>
<tr><td rowspan="2">부모가
준비하여
교육과정
에 참여</td><td>그림책
읽어주기</td><td colspan="2">•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td><td rowspan="3">자발적
참여</td></tr>
<tr><td>촌극 공연</td><td colspan="2">•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극화하여 공연해 주기</td></tr>
<tr><td>교육과정</td><td>노래</td><td colspan="2">•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공연하기</td></tr>
</table>

목적	예시 활동	참여내용	비고
확장자로서 참여	만들기 프로젝트		
	미술놀이	• 실외에서 미술활동 해보기,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활동하기, 다양한 소재 활용해보기	
	공작. 목공놀이	• 부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잔치는 통상 행사로 일컬어지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어린이집의 3주체인 아이와 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잔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방모임은 교실의 단위를 아이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방', 내 아이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의 '방', 어린이집은 또다른 집이라는 개념으로서 '방'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③ 어린이집 교육과정 참여 활동 사례

• 산마루어린이집 해보내기잔치 사례

식순	내용	진행
시작 인사 (17:00)	• 식전 인사 및 안내	원장
아이들 공연 (17:00~17:40)	• 도글이들 노래와 율동 (고마워 내게 와 줘서, 아침이오면) • 옹글이와 가족 합동 연주, 노래 (곰세마리, 통통통) • 소근이들 노래 (김장, 멋쟁이토마토,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 당실이들의 놀이(영상) 그리고 노래 (산할아버지) • 살금당실이들 '산마루 모두를 위한 노래'	선생님과 아이들
부모들 공연 (17:40~18:00)	• '숫자송'	도글방 부모들
	• '핑크퐁 방구송'	당실살금방 부모들
	• '루돌프 사슴코'	소근방 부모들
(18:00~18:20)	• 산마루 한해 영상	빔 프로젝트
교사회 공연 (18:20~18:30)	• '행복을 주는 사람', '산마루가 다 품은 소리'	산마루 교사회
앵콜 공연 (18:30~19:00)	• 촌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맘, 기*맘, 시*맘, 준*맘, 강풀
인사 (19:00~)	• 식후 마무리 및 인사	원장과 이사장

- 산마루어린이집 촌극 공연 아마활동 사례

구분	내용
공연 준비	① 자발적인 신청을 받는다. ② 준비모임 1차 : 역할 배정 및 시나리오 각색 ③ 준비모임 2차 : 연습 및 소품 준비 ④ 공연 실행
공연 진행	  

- 성미어린이집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사례

구분	내용
기획	• 미술에 재능 있는 부모, 도우미 할 수 있는 부모들과 반 교사가 협력하여 만 5세 어린이와 어떤 활동을 언제 할지 계획을 세운다. 만 5세 낮잠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이용한다. • 마을 어른들의 일터를 방문하여 직업과 일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준비 회의	• 일시 : 10월 22일 • 회의 참석 : 소*아빠, 종*맘, 야*맘, 이*아빠 • 활동 일정 : 11월 4일 ~ 1월 20일. 화요일마다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시간 운영 : 1시간 10분 이동 + 50분 진행 • 참여 아마 : 종*맘, 야*맘, 소*아빠, 이*아빠 • 활동 주제 : 마을 어른들의 직업 세계 탐방과 체험 • 예산 : 아이당 2만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결과물 제작 : 지도(공동 작품) + 개별 결과물(진행 : 참여 아마, 소*아빠) • 결과물 전시 : 2월 (진행 : 소*아빠) • 방문처 섭외 : 10월 28일까지 (진행: 야*맘, 종*맘)
마을 탐방 진행	• 11월 4일 :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동네 만들기 프로젝터 설명 • 11월 11일 : 진부서당 • 11월 25일 : 망원시장 • 12월 2일 : 문턱없는밥집 식당 • 12월 9일 : 콩 작업실 • 12월 16일 : 공원 • 12월 23일 : 라나아빠 작업실 • 1월 6일 : 되살림 가게, 생협, • 1월 13일 : 초코 또는 비누두레 • 1월 20일 : 나루 마을극장 • 1월 18일 : 키다리아저씨 빵집

구분	내용
연계 활동	• 프로젝트로 동네를 탐방하고 그림과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 졸업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다.

(2) 어린이집과 부모의 '육아 동반자' 관계망 중심 활동

① 목적 : 어린이집과 가정이 분절된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동반자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② 육아동반자 관계망 중심활동 세부 분류

활동명	내용
등하원 개방	• 부모와 등하원, 사물함 살피기, 아이의 상태를 교사에게 직접 전달
개별 소통 (수첩, 등하원 전달)	• 부모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소통, 등하원 때 만났을 때 자세한 사항 전달, 전화로 소통
정기 및 수시 상담	• 정기: 상 하반기 1회씩/ 수시: 요구가 있을 경우
방모임	• 개별 아이들의 이야기보다는 전체 방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 다룸 (언어 사용, 공격성 있는 놀이 모방 등)
육아 상담전문가 협력	•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가 연결 • 지역자원 활용

③ 육아 동반자 관계망 중심 활동 사례

- 방모임 회의록 사례

성미어린이집 별누리방 방모임 회의록

❍ 일시 : 00년 9월 15일 19시
❍ 참석 : 나르샤, 도미, 마리, 하늘

1. 운영위원회 보고
- 10월 보자기장터 예정(나중에 일정 공지 예정)

2. 일정 공유
- 9월 16일 7세 낮잠 활동 시작(14:00-15:00, 9월~2월 주1~4회, 달별 횟수 증가)
- 9월 25일 송편 빚기 한복 입기 바람 — 성미사, 경로당 방문 계획

- 9월 24일 생일잔치
- 10월 상담 일정 잡기(날짜, 요일 논의)
- 10월 7일 반보기 — 난지천공원 (긴나들이)

3. 아이들 현재 상황 공유
- 언어 발달이 극명하게 일어나는 시기
- 함께 놀이 시작
- 3세 아이의 떼쓰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정별 사례 나눔

4. 기타
- 우리 어린이집의 활동이 나들이 관계 맺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에게 좋음
- 국공립 조합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대한 고민. 조합형에서는 노동력 제공과 아마활동 이외에 어떻게 공동육아를 하나 하는 궁금증(나르샤가 사례 수집한 뒤 이야기 나눌 예정)
- 아이들 관련 주제 정해서 부모, 교사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으로 합의(11월부터)

5. 다음 별투리 방모임 일정
- 일정 : 11월 17일 (화) 19시
- 주제 : 아이의 기준과 감정
- 내용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 미리 할 일 : 그 기준이 일치하는지 아이의 활동 내용과 반응 기록해 오기

부모 참여, 어떻게 준비할까?

목적에 맞는 부모 참여로 전환하자.

-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부모 참여 활동은 대체로 '공개수업' 방식이나 발표회 와 같은 초대의 형식을 띄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부모를 관객의 입장 또는 활동을 아이들과 수행해 보는 관점이 더 강하다. 이런 부모 참여 활동이 1차적이라면 보다 능동적으로 부모 스스로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스스로 구성자로서 참여해 보는 경험은 1차적인 참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준다.
- 부모 참여 활동의 목적은 위 4가지의 목적을 가질 때 서로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교사회는 목적에 맞는 부모 참여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교사회가 왜 부모 참여 활동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과외업무 일 뿐이 된다. 그런 부모 참여 활동은 교사에게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되고 부모에게는 시간 내서 와 봐도 표피적인 이해만 갖게 되고 결국 아이들의 일상에서 부모 참여 활동은 아이들의 일상과 관련 없는 분절된

시간이 될 뿐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할까?

○ 교사회의 중요성

-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교사회다. 그만큼 부모 참여를 왜 해야하는지,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교사회의 기획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부모 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활동이 된다면 교사들에게는 분명 과외업무에 지나지 않게 된다.

○ 누구나 참여할 만한 활동이 필요하다

- 부모회 구성원 누구라도 해 볼 만 한 활동이 좋다.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거나 너무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부모 참여 활동은 참여의 벽만 높아지고 결국 일부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마음만 낸다면 해 볼 수 있는 시간대와 활동내용이 필요하다.

○ 세 주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가?

- 부모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하는 것처럼 동시간에 함께 머무르는 교사에게도 과중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책 읽어주는 부모 참여를 한다 해도 교사가 아이들을 시간에 맞춰 모아야 하고 부모가 책 읽어주는 동안 여러 아이들이 잘 집중 할 수 있도록 다독이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고 교사와 같은 기술이 없어도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부모도 좋고 교사도 좋은 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 또한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일이다. 아이들은 흥미도 없는 데 어른들의 목표를 위해 아이들을 희생할 수는 없지 않는가? 또한 영아들의 경우는 낯선 어른 또는 자기 엄마, 다른 친구의 엄마가 영아들의 생활공간에 머무르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엄마를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주 민감해 진다. 영유아마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회와의 협력적 운영

- 일년을 마무리하며 진행해 본 참여 활동들에 대해 전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함께 평가 해 보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과 내용이었는지 돌아보며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3) 부모회 자치활동

① 목적 :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건강한 주체로 자리할 수 있는 부모 참여 활동이다. 협동조합에 이미 부모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라면 이미 조합이라는 조직체 안에서 자치활동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부모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② 필요성 : 어린이집의 한 주체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모가 아닌 부모회가 구성되어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영과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주인의식과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지원, 협력하여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③ 부모회 역할 : 부모회는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치르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일감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조율하거나 어린이집에 건의하고 싶은 안건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기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건강한 소통이 자리잡을 수 있고 구체적인 부모회 조직을 통해 어린이집과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부모'라는 공통분모에 필요한 교육 또는 활동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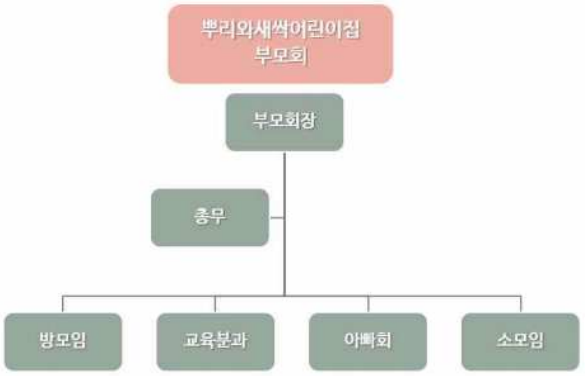
④ 부모회 구성 : 부모회는 해마다 학기 초에 전체 부모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서 부모회장을 선출하고, 각 반을 대표하는 부모 또는 추가로 분과위원을 선임한다. 각 방대표와 부모회 회장(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이 된다.

뿌리와새싹어린이집 부모회 구성 사례

부모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

- 2008년 11월에 16가구로 18명의 아이로 개원한 어린이집은 개원초부터 방모임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방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담감을 느끼며 3개월 씩 돌아가면서 방장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다.
- 원장 입장에서는 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장들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 적응할만하면 구성원이 바뀌는 것이 논의나 결정을 책임감 있게 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되어 부모들에게 요청하여 2010년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방장을 맡아주길 부탁했다. 그 시기에 특히나 열성적인 부모들이 많아서 인지 대부분 1년씩 방장을 맡아서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그러던 중 2010년 11월에 있을 개원기념잔치를 준비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마라톤을 열심히 하는데 격려해주고자 매달 만들기를 작년에 했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또 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역할분담을 하게 되었다.
- 각자 맡은 부분을 하는데 어떤 방은 참여하는 부모들이 많고 어떤 방은 소수라 일 분배가 원활하지 않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생겨나고 그 소리가 뒷소리처럼 떠돌면서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부모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많은 부모들의 공감 속에서 2011년 3월 부모회 창립총회를 준비하여 부모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뿌리와새싹어린이집 부모회 조직도



⑤ 부모회 활동 :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총회이다. 부모회는 총회를 열기 전에 총회 안건 및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는 배포하고, 사이트에도 총회 공고를 올려 모든 부모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겸하게 될 부모회 임원진을 선출하는 것에서부터 정관 개정 사항, 부모회 사업 예·결산 보고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승인하게 된다. 부모회 대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사업 계획과 평가 등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결정해야만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부모회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부모회 활동 사례

- 부모회 총회 사례

뿌리와새싹어린이집 부모회 총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19:00~21:00
❍ 장소 : 뿌리관 1층
❍ 진행 : 2016년도 부모회 회장 배세현·예린맘 정세나

제 1부
1. 뿌리와새싹 단체 소개 및 설명(자료 첨부)
2. 부모상 시상 (수상자 상품은 총회 후 그루터기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부
1. 개회선언
부모회 회원 86가구 중 위임을 포함하여 70가구가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모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운영보고
1) 2016년도 부모회 주요사업 보고 (첨부화일 참조)
2) 2016년도 결산보고 (2016년도 총무 차예은·태환맘 홍정희)
- 총수입 : 10,410,258원 / 이월금, 부모회기금, 한가위잔치판매수익금, 아이돌봄비, 대청소시지원금, 이자소득 등
- 총지출 : 9,142,480원 / 2016 부모총회 아이돌봄, 부모교육, 단오잔치, 가을대청소, 공동육아 한마당, 개원잔치, 해보내기잔치, 경조사 등
- 잔액(이월금) : 1,267,778원
- 자세한 내용은 터전 홈페이지-부모회/아마활동-329번 게시물 참조
- 한해 알뜰하게 살림해주시고 많은 이월금 남겨주신 총무님 감사합니다.

3. 부모회 정관 소개 및 정관 개정
4. 부모회 활동 소개
1) 교육분과 - 부모교육 선정, 강사섭외, 아이돌봄등을 진행하여 2017년도 각방 교육분과위원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2) 아빠회 - 소개
3) 소모임
① 송알송알 소개 : 솔라시 강은희 / 현재 인원 7명 / 모임 : 매주 목요일 10시30분, 관들마실 / 내용 : 그림책 공부, 인문학 강좌 듣기 및 책읽기, 영화·미술관 관람 등
② 소리노리 : 참다운방 유진맘 / 내용 : 기타 강좌 수강, 맨토·맨티 연습, 터전행사 오프닝 공연 등
③ 지끈 : 깨몽 / 모임 : 매주 금요일 10시~12시

5. 연관 단체 소개
1) 계수나무방과후 - 이사장 노른자(하영·정환파 윤종근)
2) 함지박교육공동체 - 이장 대나무(인엽·정엽파 이주욱)
: 이장님의 추천도서 : 한국의 교육 생태계, 경쟁의 배신

6. 2017년 부모회 임원 선출
후보 : 알찬방 이현맘 vs 지원파 → 지원 아버님의 기권으로 전원 박수로 이현맘이 부모회 회장으로 선출.
회장 : 알찬방 이현맘 하연경 / 총무 : 알찬방 이정맘 진서연 / 서기 : 도글도글방 영원맘 김효진

7. 2017년 임원 및 방장 인사(운영위원회)

8. 2016년 임원 및 방장 인사

9. 폐회사
이상으로 2017년 부모회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례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소위 활동

❍ 어울림소위원회
- 산마루 가족 구성원 간이 유대감 향상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 산마루 봄·봄·봄 잔치 진행

❍ 도움소위원회
- 소모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어린이집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 산마루 아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장명루 팔찌' 소모임을 만들어 단오 선물하기
- 뜨게질을 배우며 아이들의 놀잇감을 만들어 주는 소모임
- 겨울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운고 립밤, 보습연고 만들기 소모임

❍ 배움소위원회
- 조합원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여 조합원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육아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진행한다.
- 학령기 분과, 성교육 분과, 감정코칭 분과로 나누어 3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소위원들 간에 분과별 토론 및 모둠활동 진행

❍ 알림소위원회
- 조합 또는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협동조합 사업을 알린다.
- 소식지 제작하여 공유

❍ 살림소위원회
-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결산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교직원소위원회
- 교사조합원 정체성 확립, 강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 하자센터 참관 방문, 인권교육, 제주도 여행, 사회적경제 위탁 국공립 교사조합원 교육-강사활동 등



- 부모회 자치활동 사례

활동명	내용	비고
부모회	각 방 대표 선출, 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 총회	전체 참여
교육분과	부모교육을 기획하고 실행 평가, 학습 공동체	자발적 참여
소모임	부모들이 원하는 모임 구성하여 운영(그림책 소모임, 기타 소모임, 지끈 소모임 등)	자발적 참여
아빠회	아빠들이 공식적으로 육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아빠들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대청소, 김장, 아빠와의 추억여행, 가족 소풍 등)	자발적 참여

부모회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다양한 부모회 조직활동

- 부모회는 소모임에 대해 안내하고 관심 있는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발적인 소모임 형식으로 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소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모임이 한번 구성되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없어지고 다른 소모임이 구성될 수도 있다. 소모임의 수는 구성되는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분과 또는 소위원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한 소모임과는 달리 부모회와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가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성장의 주요한 밑거름이 되는 부모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교육분과를 따로 두어서 부모들의 요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준비 및 진행 평가의 전과정을 교육분과에서 주도한다.
- 교육분과(소위) 구성원은 각방에서 방장을 뽑듯이 각방에서 교육분과 위원 한명씩을 뽑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각 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희망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분과는 전체적인 부모교육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교육을 준비하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하며 교육적 관점을 나누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나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부모회 활동과 어린이집 연대를 위한 고려점

- 부모회가 아무리 활성화 된다고 하여도 계속되는 변화(2, 3년 기간에 부모들의 교체)에서의 성장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모회 활동은 한계가 있다.
- 독자적인 부모회 활동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뚜렷한 가치를 가진 부모들이 다시 모여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회는 어린이집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부모회 전체 구성원들이 어린이집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회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부모회

구성원간의 협력관계를 쌓는데 집중하는 구조를 가진다.

부모회(협동조합)를 운영하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부분

- 어린이집의 운영이 원장 또는 교사회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 어린이집에서의 부모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매개로 하여 부모들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
- 부모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동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의사소통을 하며 기존 사회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관계성을 배운다.
- 부모회의 활동과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부모와 아이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과정을 공유한다.

운영위원회와 부모회의 차이

-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에 부모위원으로 부모회에서 선출된 방장과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위원, 부모위원, 지역위원이 구성되어 안건에 대한 논의, 예,결산 심의 등을 하고, 부모회에서는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활동이 정해지므로 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활동을 자유롭게 해갈 수 있다.

(4) 육아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동

① 목적 : 공동체는 삶의 양식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라는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그 삶을 실천하는 주변의 어른,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공동체의 붕괴'를 누구나 꼽는다면 현대의 아이들은 보고 배울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이런 사회풍토 속에서 아이들에게 작지만 큰 배움은 나에서 우리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어른들의 노력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하다.

② 세부 분류

활동 내용(예시)	내용	의미
마실문화 만들기	가까운 이웃끼리 품앗이, 공동캠핑, 아이들 교류, 부모들 교류, 어린이집 주변으로 이사 오기	개별적인 관계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의 문화 경험
한솥밥 나누기	맞벌이 부부의 편안한 저녁 문화를 위한 한끼나눔	소중한 먹거리 문화를 통하여 마을 안에서 이웃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장
아빠들의 방모임	연령별 아빠 방모임 활동 (운영위원회 별도)	육아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빠들이 연령별, 방별 방모임을 따로 가지면서 관계를 형성함

건강한 공동체 생활 문화를 위한 고려점

구성원 간 공동체 지향점 명확히 공유하기

-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 개개인이 담고 있는 열망과 내용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 각 공동체가 왜 모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 모든 구성원이 동질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관 및 규정들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에 맞게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고 실천, 평가할 수 있다.

'만남'의 방식 존중하기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일이나 활동을 시행하는 것 모두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효율성 보다는 많든 적든 만나서 이야기 하고 만나서 놀고 만나서 나눠 먹는 방식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 양식이다.
- 특히 예민한 주제나 화제는 더더욱이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오해나 왜곡없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갖기

- 여럿이 모여 살다보면 생각이 다르고 해결하고 싶은 방식도 달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해결과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 하고 어디에서 논의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원이 동의하는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력한 규칙 만들기

- 공동체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선한 것, 마음을 여는 것, 편안한 것, 내 마음 같은 것으로만 이해하고 기대하기 쉽다. 그렇지만 여럿이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적과 활동, 그에 따른 생활규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티켓 또는 운영규정이나 규약을 만들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를 운영하다보면 불거져 나오는 사안들이 생긴다. 이런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공동체 운영 규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부모와 교사라고 하는 다중이해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경우에는 더욱이 부모와 교사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공동체 기여,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고 공동체 활동의 장이 대부분 어린이집이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아이들과 교사가 생활하는 공적인 장소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라는 다중이해자는 공통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이'라고 하는 가장 약자이면서 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과 공동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어른들을 위한 '공동체적 감수성'을 높이는 3요소 - 놀꺼리, 먹거리, 이야깃꺼리

○ 잔치문화

- 잔치문화는 아이들에게 가장 집약적인 공동체 경험의 장이다.
- 어른들도 잔치를 통해 관계의 긴장도 풀고 함께 놀고 먹고 즐기며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 잔치를 준비하며 여럿이 함께 어울려 좋았던 가장 인간적인 감정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 관계의 긴장보다는 안심, 어색함 보다는 친밀감을 만들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활동이다.

○ 이야기문화(회의문화)

-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 장이 필요하다.
- 방모임이 교사와 부모들의 이야기 장이라면 부모들만의 방모임은 또다른 이야기 장이 되며 소모임이나 방별, 소위별 모임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며 관계와 의견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이런 이야기 모임들은 규칙이 너무 딱딱하거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재미와 욕구에 따라 모이고 헤어질 수 있도록 열린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 모임들이 사모임처럼 친목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경우가 된다면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폐쇄적으로 보여지며 이런 모임은 다양한 생각과 흥미를 나누기 보다는 동일한 관심과 화제를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가기 쉬우므로 유의한다.
- 공동체에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와 여지가 필요하며 특히 꼭 필요한 이야기(정보)들은 모임을 갖든 갖지 않든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식적인 이야기는 회의다. 회의의 형식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다.
- 모든 이야기들이 비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와 결론은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한다.

3. 협력적 교사회

1) 협력적 교사회란?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며
교사 서로 간 다면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가 된다

- ❍ 어린이집 구성의 세 주체는 부모, 아이, 교사이다. 이 가운데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몸에 익혀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내는 역할을 한다.
- ❍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원장을 포함하여 어느 한 교사, 일부 교사만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전체 교사, 즉 '교사회'가 일관성 있는 교육의 가치와 태도를 갖고 임해야 비로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교육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하고 결정하여 실천하려는 교사들 의사소통과 협력은 '부모, 아이, 교사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린이집을 얼마나 건강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 ❍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교사들이 여러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함께 실천하고, 실천한 뒤에 다시 함께 평가하고 그것을 다음 계획에 반영해 갈 때 어린이집의 교육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간다.
- ❍ 교사회는 부모, 아이에게 일관된 태도를 가짐으로써, 세 주체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생기는 소모적인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관계로 성장해 간다.
- ❍ 이렇게 교사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운영되는 교사회를 '협력적 교사회'라 한다.

2) 협력적 교사회의 필요성

(1) 교육 주체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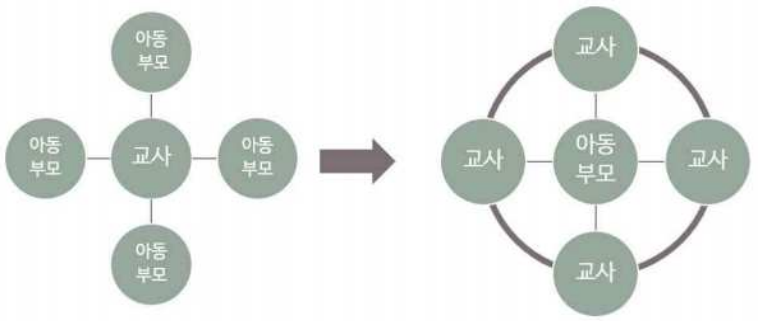


그림 16. 교사-아이-부모 관계의 변화

- 영유아기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과 함께 후천적으로 몸과 마음의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 이 시기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로 성장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부모 역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 교사 역시 개인으로 볼 때,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와 부모를 만나게 된다.
-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만난 부모와 교사는 서로 교육의 파트너가 되어 아이의 성장을 돕고 각자의 성장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부모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관계로 왜곡되어 있다.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갑을관계'로 전락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 주는 축이 필요하다.
- 교사는 아이가 부모 없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인성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 그래서 아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주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교사가 아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기만을 요구하지 아이의 전체적인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교사와 부모가 다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교사나 부모가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어린이집의 생활 모습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런 관계 맺음은 아이들의 삶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다른 가치로 생활하게 만든다.

○ 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아이 생활을 부모에게 객관적으로 알려줄 필요를 느끼지만 부모가 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을 말하는 것은 부모 자신에 대한 평가나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기 쉽고, 교사가 아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에 대해 부모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줄 때 큰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 교사와 부모의 관계가 어려울 경우, 또는 부모가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 역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거나, 부모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사 역시 아이에 대한 시각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 주저하게도 된다.

○ 이런 상황에서 협력적 교사회는 아이에 대해 교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논의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교사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교사 각자가 개별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서로 다른 교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아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교사회 안에 자리잡게 되면, 부모들도 교사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게 되어 교사의 의견에 대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보는 태도를 보이고 교사와의 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 부모와 교사가 단지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 아이를 키운다면 가정에서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일관성 있는 생활이 가능하고, 이런 환경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 협력적 교사회는 이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2) 일과 삶이 일치하는 교사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교사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을 느낄 때이다.

○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교사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그럴 때 강도 높은 노동과 박봉,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끔 일어나 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곱지 못한 사회의 시선이 더해지면 보육교사라는 정체성에 쉽게 회의를 느끼고,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게 된다.

○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아이들 은 교사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은 아이들의 삶에서도 발현되지만, 교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발현되고, 교사는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

며 자신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직업인으로 보람을 느낀다. 이런 보람을 느낄 때 교사는 이 일을 직업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상을 보듯, 교사는 선배 교사나 동료 교사를 통해 자기 일과 삶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 ❍ 협력적 교사회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를 형성한다.
- ❍ 선배 교사는 일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성숙한 직업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후배 교사는 그런 선배 교사를 따라 배우며 교사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협력적 교사회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풍부하게 하도록 하며, 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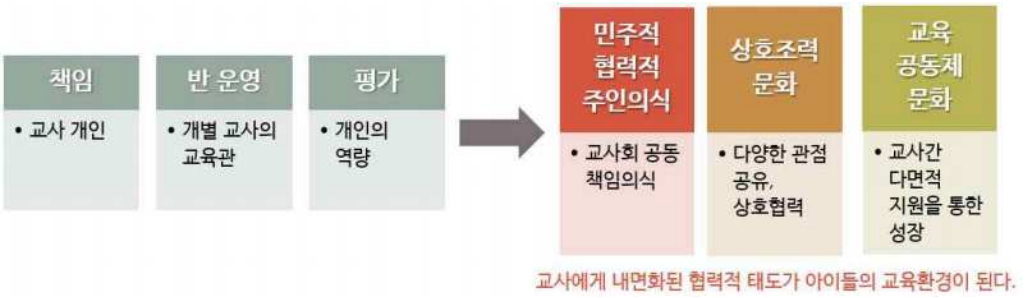


그림 17. 협력적 교사회 문화의 필요성

(3)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영과 교육을 위하여

- ❍ 교사회는 어린이집의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더 넓게 나누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능력 있고 뛰어난 한 사람의 지성보다 여럿이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집단지성의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어느 실험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훌륭한 원장, 능력 있는 선배 교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교사들 여럿이 함께 협력했을 때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 ❍ 협력적인 교사회는 자기 방 아이를 보는 미시적 관점과 함께 어린이집 아이들 전체를 보고, 어린이집의 전체 교육과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거시적 관점을 함께 지니게 한다. 이는 긍정적 결과뿐 아니라 교사의 예상치 못한 실수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교사회가 함께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교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실수나 실패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협력적 교사회의 몫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대의식을 갖게 된 교사회는 보람뿐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어린이집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초석이 된다.

(4)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 교사회가 함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강화된다.

○ 아이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

○ 사회적인 선입견이 아이와 지내는 직업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갖게 되며 더욱 필요한 교사로서 성숙해지기 위해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5) 부모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위하여

○ 부모, 아이, 교사 관계에서 교사회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 살피고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아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줄 수 있게 한다.

○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나 교사가 아이가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에 대해 교사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면 한 교사가 고민하는 것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 이렇게 논의된 것을 부모들과 나누면 부모들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이런 경험이 쌓여 교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 교사회는 부모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6) 공동 운명체로서의 동지애 형성을 위하여

○ 인생의 전 과정에서 영유아기 삶에 관여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의 교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상생하는 공동운명체이다.

○ 한 교사가 실수하면 그 교사가 실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회가 책임감을 갖는다. 특히 선배 교사들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회 안에서 반성과 성찰, 이끎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어려움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는 동료들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협력적 교사회를 이끌기 위한 교사회 일원으로서의 원장의 자리

-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소통방식은 교사의 정체성과 행동방식, 아이들,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한다. 교사들의 소통방식은 그 어린이집 원장의 마인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교사들이 원장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 원장이 모든 결정을 하고 교사들은 그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분위기의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도해 보는 역동성을 찾기 어렵다. 원장이 지시한 사항은 빈틈없이 수행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사항만을 기다리고 수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원장이 원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교사들의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 또 원장을 교사회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관리, 감독, 지도하는 관리자로 인식한다.
- 원장을 '교사회'라는 전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어린이집은 분위기가 다르다. **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을 책임진다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이기도 하다는 관점으로 원장과 교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원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동료, 또는 선배 교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사가 원장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원장 스스로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지는 그 교사회 소통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협력적인 교사회에서 원장은 교사회가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교사 스스로 극복하게도 하고, 두드러지게 도하여 자신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협력적인 교사회는 방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의 보육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협력적 교사회 속에서의 원장은 경험과 지혜가 쌓인 것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육에 직접 참여해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비전 세우기가 가능하다.
- **원장은 교사, 아이, 부모가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교사가 잘 소통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들이 원만히 소통할 수 있도록 원장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한다.
- 원장은 협력적 교사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정체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교사회를 성장하게 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다.

3) 교사회 구성

어린이집 교사회의 구성은 교사회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사 간의 책임감을 키우고 업무의 분담을 원활하게 하여 교사회의 협력을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1) 교사회 구성 사례

① 원감, 주임제

- 평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원장을 가까이에서 돕고, 평교사와 원장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줄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키워야 한다.
- 원감 또는 주임교사는 이런 직책을 통해 자기 방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시각을 평교사보다 먼저 터득할 수 있다.
- 원장을 도와 어린이집 운영, 교사회 문화, 교육철학, 부모 관계, 아이들 관찰 같은 부분에서 평교사를 도와줄 수 있다.

② 공동주임제

푸른숲어린이집의 교사회 구성은 원장 1명, 담임교사 7명, 비담임교사 1명, 누리보조교사 1명, 조리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은 교사회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주임교사는 3명의 공동주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주임교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주임1 : 주임교사1은 방담임을 하면서, 교사회 내에서 어린이집의 교육을 실천하고 이끌어가며 교사들 간의 솔선수범을 보여줌으로써 동료교사들의 모범이 되고 후배교사들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역할. 업무분장으로는 운영위원회 격년 참석, 원감회의 참석, 공동육아 교사대회 준비위원, 교사 근태관리, 교사 근무시간 배정, 업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임2 : 주임교사2는 1세방을 담당하면서, 영아 부모들의 염려와 기우에 대해서 아이들을 먼저 키운 선배 부모이며 경력 교사로서, 영아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안전한 보육,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과 후배교사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함, 운영위원회 격년 참석하며, 업무 분장으로는 비품대장관리, 음률지도등을 맡고 있다.
- 주임3 : 주임교사3은 비담임 교사로서 필요시 방 지원을 하고 평상시에 전화 상담 업무, 입소대기자 관리, 회계업무 등을 원장과 함께 하고 있다.

(2) 구성에 따른 역할 : 직무에 따른 업무 안내

교사회는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각기 맡은 업무가 직무와 역할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구분	역할
방 담임교사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안전 책임 • 원장(원감)의 지시에 의한 기타 업무 수행 • 담당 방 부모들과 교류(방모임, 면담, 날적이)
보조교사	• 각 방 담임교사를 도와 방 운영
주임교사(원감)	• 중간관리자 역할 • 신입 교사 교육, 원장 부재 시 어린이집 운영 관리 • 교육계획 수립
조리사	• 어린이와 직원의 점심 및 간식 제공 • 주방 위생관리 및 기타 필요업무
조기출근 (하원)교사	• 별도의 근무시간에 따른 특별한 역할 수행
원장	• 운영위원 • 어린이집 관리 총괄 •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 직원 근태 관리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사회의 주관 • 아이들 안전 및 건강관리

표 5. 교사회 역할 분담 예시

4) 협력적 교사회의 성장 과정



그림 18. 협력적 교사회의 성장 과정

(1) 1단계

○ 협력적 교사회 개념 안내

- 원장만이 어린이집의 주인이고 교사들은 고용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원장은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회 운영의 원칙에 대해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교사상에 대해 인식하고 노력하게 되며, 원장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 주임(원감)교사의 성장

- 평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원장을 가까이에서 돕고, 평교사와 원장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원감, 또는 주임교사라는 직책을 가진 교사는 이런 직책을 통해 자기 방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시각을 평교사보다 먼저 터득할 수 있다.
- 원장을 도와 어린이집 운영, 교사회 문화, 교육철학, 부모관계, 아이들 관찰 등 평교사를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다.

(2) 2단계

○ 원장과 주임교사의 협력관계를 통한 평교사의 성장

- 원장과 주임(원감)교사는 교사 재교육 과정 등에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교사회 공동 활동 등에서 솔선수범

- 후배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선배교사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후배 교사 간 유대 관계 형성

(3) 3단계

❍ 안정된 교사회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평교사 성장

- 선후배 교사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고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평교사도 성장을 보인다.
-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평교사가 성장할 수 있어야 교사의 변동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체 교사회 문화가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노력해 온 협력적 교사회가 유지, 지속될 수 있다.

(4) 4단계

❍ 직급의 구분 없이 평등하게 역할 수행

- 원장을 중심으로 직급과 선후배 간의 경계가 없이 민주적 협의과정을 통해 교사회를 운영해 간다.
- 이렇게 되려면 교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사회를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구성원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일과 삶의 일치

- 직업으로서 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인식되어 생활하는 모습이다.

5) 협력적 교사회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

협력적 교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교사회 문화가 중요하며 이때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자발성, 자기성찰, 팀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발성(주인의식)

❍ 협력적 교사회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 교사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답을 구할 수 없으면 선배나 동료 교사의 조언을 구하고 들은 대로 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누군가 억지로 이끌고 가면 간섭이거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조언이 되는 것이다.

○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교사 개인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교사회의 힘이 되게 된다.

○ 교사 개인의 성장은 보육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협력적 교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며 내가 안하면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자기성찰

○ '교사는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부모, 아이와 만나야하고, 교사 스스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성찰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누면서 교사회는 서로 자극 받고 함께 노력해 가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는 교사들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극복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면 신뢰관계가 형성하게 된다.

○ 교사들의 상호신뢰관계는 교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 교사회는 교사의 성찰이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월 평가서 쓰기, 스스로 재교육 찾아서 하기, 주제 활동 실천하고 발표하기, 교육일기 쓰기 등이 구체적 방법들이다.

○ 또한 업무 중 부딪치는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이나 무력감은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낳기에 나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고 운동이나 기타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미나를 통해 성장하는 교사회 사례

목적 : 어린이집 교육방향을 교사회가 만들어 간다.

목표 : 교사들의 교육 가치관을 맞추어 간다.
어린이집의 교육 가치관을 교육내용으로 실행한다.
실행한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여 어린이집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 : 주제를 정해서 한 해 동안 월 1회 세미나를 진행한다.

역할 :

직무	역할	역할에 따른 내용
원장	세미나 전체 기획과 진행	강사 섭외, 교재 선택, 원감과 사전 토론 내용 점검
원감	세미나 진행	회의 진행, 세미나 일정 조율, 토론 내용 사전 준비 확인
교사 전체	토론 내용 사전 준비	관찰내용 정리
	세미나 회의록 작성	녹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
교사 1, 2	발표	발표 내용 정리, PPT 작업

내용 :

연도	주제	진행내용	공유
2013	통합나들이 나눔을 통한 교사회의 변화	◆ 3월 공동육아 교사회 '교육 공모전' 참여로 멘토 지원 받음 ◆ 시기 : 5월 ~ 12월 / 월1회 세미나 ◆ 내용 : 주 1회 통합나들이를 관찰, 동영상기록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을 토론하고 나들이에서 적용하여 통합 나들이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을 정리함 ◆ 멘토 : 공동육아 현장교육지원전문가	◆ '공동육아 겨울교사대회' 사례 발표
2014	성미어린이집 교육나눔 : 나들이를 중심으로	◆ 시기 : 5월 ~ 1월까지 / 월 1회 세미나 ◆ 내용 : 나들이에서 영·유아의 놀이 상황 중 맥락이 있는 내용으로 사진, 동영상, 일화기록, 저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토론 함 ◆ 놀이를 통해 아이, 교사, 자연과의 관계를 찾고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정리함 ◆ 멘토 : 공동육아 현장교육지원전문가	◆ 부모총회 발표
2015	성미어린이집의 놀이•생활문화	◆ 시기 : 4월 ~ 1월까지 / 월 1회 세미나 ◆ 내용 :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유아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성미어린이집 나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 발달과정, 교사의 역할을 정리함 ◆ 참고자료 :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 '공동육아 겨울교사대회' 사례 발표, ◆ 부모총회 발표
2016	성미어린이집 하루 흐름의 의미 찾기	◆ 시기 : 4월 ~ 1월까지 / 월 1회 세미나 ◆ 내용 : 등원, 아침모둠, 나들이, 점심, 낮잠, 표현활동, 자유놀이, 하원의 순서로 하루 일과의 의미를 한 달에 한 꼭지씩 정리함 방모임에서 부모와 공유하고 하루흐름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교사•부모의 역할, 소통에 대해 정리함 ◆ 참고자료 :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교육적 의미 탐색' 이부미(2011)	◆ '공동육아 지역교사회' 발표 ◆ 부모총회 발표 ◆ 방모임 공유

연도	주제	진행내용	공유
2017	긍정적 상호작용	◆ 시기 : 1월 ~ 11월 / 필요에 따른 교육, 연습모임 진행 ◆ 내용 : 비폭력대화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연습. 불편한 상황을 관찰로 바로 보고 나의 욕구, 느낌을 찾아 부탁하는 방식의 소통을 연습함으로 나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이해로 소통하는 방법을 영·유아, 부모, 동료에게 적용 ◆ 지도강사 : 한국NVC센터 강사 ◆ 참고자료 : '비폭력대화 NVC' 캐서린 한	◆ '공동육아 지역교사회' 발표 ◆ 부모총회 발표

(3) 팀워크

○ 수학적 계산으로는 교사회가 열 명이고, 한 명의 교사가 '하나'씩 힘을 모으면, 열 개의 힘이 모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숫자와 계산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힘은 열이 될 수도 있고 열을 훨씬 넘길 수도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구성원 간의 팀워크다.

○ 협력적 교사회가 지향하는 방식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권하고 교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실천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 수동적인 팀워크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자발성과 성찰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신뢰관계에서 건강한 팀워크가 만들어진다.

6) 교사회 활동

(1) 교사 간의 활동

○ 협력적 교사회가 하는 구체적 활동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회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꼭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생활이나 교사들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도 있다.

○ 짧은 교사회의, 긴교사회의 등 어린이집의 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직접적이며 기본적인 활동과, 회식이나 생일 축하 등 교사회의 팀워크를 위한 간접적 활동은 활동 결정 주체, 참여 의무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격이 다른 활동이다.

○ 그러므로 교사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런 활동을 결정할 때 각기 다른 구성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무리 없이 조절해 가느냐 하는 것부터가 협력적 교사회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회의

○ 회의의 역할과 필요성

- 주간회의나 긴회의 등을 통해 교사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것, 결정된 사항은 함께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 또 실천한 뒤에 다시 함께 평가하고 그것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선배 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된다.
- 자기 방 아이들뿐 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전체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어린이집의 전체 교육과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 결과뿐 아니라 간혹 교사의 예상치 못한 실수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교사회가 함께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회의의 종류

구분	내용
짧은 교사회의	• 주 1회. 낮 시간 활용 • 지난주에 대한 평가와 이번 주 계획에 대해 논의 • 1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논의해야 하므로 주로 일정에 대한 협의에 집중
긴교사 회의	• 한 달에 한 번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 짐 • 월 평가 및 다음 달 계획, 방모임에서 부모들과 소통할 내용 정리, 논의할 안건 등 토의. • 평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짐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교사회의 전에 주임교사회의를 먼저 함 • 주임교사회의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해도 무리 없는 안건과 교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안건을 구별, 전체 교사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안건 공유 • 주임교사회의 : 원장과 주임교사 참여
연평가 회의	• 일 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일 년 동안 이루어진 운영과 교육 평가 • 통합활동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미리 평가 초안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각 방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각 방 담임이 평가. • 이 평가를 기초로 이듬해 교육계획안 작성 • 연간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평가하기도 함.
자치회의	• 원장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을 경우 교사들만의 회의를 할 수 있음. •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연령별이나 층별로 나눠서 회의를 할 수 있음

○ 교사 긴회의 회의록 사례

<table>
<tr><td>회 의 명</td><td colspan="3">2017년 교사 긴회의</td></tr>
<tr><td>일 시</td><td>2017년 9월 22일 금요일</td><td>장 소</td><td>주방</td></tr>
<tr><td>참 석 자</td><td colspan="3">코뿔소, 물총새, 토끼, 장미, 민트, 나비, 반딧불, 연꽃</td></tr>
<tr><td>1.
보고 및
전달사항</td><td colspan="3">1. 평가
▶ 시장놀이
• 부모님들이 오지 않아서 덜 복잡했지만 영아들은 도움을 주어야 해서 손이 부족하기는 했다.
•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를 덜 써서 좋았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했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낸 것 같다.
• 순서를 바꿀 때 준비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바로 시작하니까 더 어수선 했다.
• 놀잇감과 먹을거리를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다.
• 형님들과 동생들의 짝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다.
• 한 번의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동생들을 돌보기 힘들다./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 시장놀이가 점점 발전을 해야 하는데 발전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아이들이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며, 기획을 보여줘야 창의력 발달과 쓰기, 그리기 등 다양한 발전이 있는데 이번에는 교사들이 다 만들어줘서 많이 아쉬웠다.
• 병원놀이 할 때도 진짜 병원 이름 말고 아이들의 생각으로 병원의 이름을 지어 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
• 글을 모를 경우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 아이들이 기획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즐거운 놀이가 될 것 같다.

▶ 체육 참여 수업
•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다고 말씀하긴 부모님이 계셨다. 만국기 등 시간이 길어져서 더 즐거웠던 것 같다.
• 작년과 비교해 내용이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 영아 방은 부모님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는 활동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다.
• 아이와 부모님 대결로 하는 줄다리기가 정말 좋았다./ 부모님도 놀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부모님도 하고난 후 정말 즐거워 하셨다.
• 덩더쿵 방은 부모님과 함께 체육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생태 놀이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평소 잘 참여 하지 않으려고 하심)
• 주변 주민들의 표정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었다.
• 시간이 방별 한 시간씩으로 잡아서 충분히 논 것 같다.
• 모든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오셨다. 이렇게 다 오셔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 다음에도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 강사는 부모들이 백프로 참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 참여수업이라는 생각만 있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줄다리기를 제안했는데 그때 부모들이 자신도 체육놀이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 순간 재미있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미리 짚어주어야겠다.
• 빵이 맛있다고 앵콜이 들어왔다. 부모 생태 놀이 때도 주문하기로 했다.

2. 안건</td></tr>
</table>

▶ 관찰 기록

- 서근원 교수님 교사대회 때 강의 한 아동 관찰기록 우리도 시도해보자.
- 여름교사대회 때 강사님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강의를 해 주셨다. 바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하반기에 한명만 관찰을 해보자. 한 교사가 한명씩
- 긴회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아 보자.
- 다음 긴 회의 때 A4 종이에 한 장 정도 기록해서 이야기 나눠 보자
- 교사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

▶ 한 터전 한 교육

- 학기 초반에 생태 도감을 만들어 보자고 함.
- 사이트에 올린 목/초본 사진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표해 보자
- 아이들하고 또는 부모님과 어떻게 확장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모아서 발표하자.
- 사진 정리/이론/아이들 자료준비, 발표/생태자료/자료 삽입 작업
- 계절별로 하면 좋을 것 같다.
- 사진작업하시는 분은 계절별로 찍은 사진을 따로 폴더로 모아 주셔야 함.
- 도감 제목 "우리동네 자연도감"

3. 방모임 전달사항

- 소근당실방 : 아마활동 시 긴 나들이 때 지원 가능한가? 또는 손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해줄 수 있다. 고 말씀하셨음.
- 도란방 : 긴 나들이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고, 그냥 들어오기 아쉬우니 도시락을 싸서 가서 먹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어머님께서 좋아하셨다.
- 도글방 : 시훈이 어머님께서 도글방 분위기가 정말 좋다. 서로 정말 잘 놀아서 좋다 라고 다른 부모님들께 전달하셨음.
- 덩더쿵방 : 6세가 분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초과 인원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재원 신청 받는 기간/ 언제 확정되는지 물어보셨음.

4. 아이들 이야기

▶ OO이야기

- 몇 달 전에 발달이 좀 늦은 OO를 월령이 더 어린 도글방으로 옮겨 주면 좋겠다는 엄마 요구가 있었다.
- 각 방 아이들 다 교사와 애착이 다 되어있고, OO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 담임교사가 있는 방에 있는 것이 개별 돌봄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의견을 드렸고, 어머님도 "그래요"라고 말씀하셨다.
- 몇 달 후 OO가 센타에서 공식적으로 발달 지연 판정을 받고, 도글방으로 옮겨 달라고 정식으로 교사회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지O이 어머님께 전화하셔서 지O 이와 방을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 지O 어머니는 '교사회만 괜찮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O어머님과 통화를 해보니 교사회에게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운영위원이어서 모른 체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 지O 이와 OO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옮기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OO이도 조금씩 발달하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담임을 바꾸는 것은 OO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 센터에서 소그룹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 원 담임 방은 OO를 케어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 지금은 OO맘이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상태여서 자기 아이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운영위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기타

▶ 생태 나들이

- 식사비용과 차량을 지원해 줘서 가족 소풍처럼 인식이 되어 많은 가족이 참여하는 것 같다.
-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안내함.
- 되도록이면 아빠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름표(모둠별로 색깔 다르게)/깃발 준비(핑크/노랑/연두) 하늘색 구입해야 함.(민트 구입하기로 함)

▶ 내년 6/7세 5/6세 통합 방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공단 : 일자리 창출 정부 공약 관련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높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배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10월 19일 행정감사준비

- 아이들 생활기록부 사진이 다 있어야 함.
- 모든 서류에 원장님 결재란이 있어야 함.

▶ 안산 한마당 10월 27일에는 "숲"을 주제로 함.(코뿔소가 숲 활동 팀장 맡음)

- 알쇠방(6~7세)은 코뿔소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한다. 코뿔소가 들어가면 '여기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모른다. 많이 들려주려 한다.

▶ 7세 프로그램 (토끼/10월부터 8주)

- 토끼(합창) 실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 소근당실방은 소리가 퍼져서 노래를 부르기 적합하지 않다.
- 중문을 닫고 현관에서 하면 어떨까?
- 노인정을 빌리면 어떨까?/어르신들이 싫어하실 것 같다.
- 시크릿 가든에서 돗자리를 펴고 해도 좋을 것 같다.

6. 10월 계획

- 먼 나들이 소근당실/덩더쿵(10월20일) : 노을공원
- 10월 28일 대청소
- 11월 1일~11월 3일 토끼 연차(대체교사 없음 민들레 또는 무지개 지원)
- 10월 16일~27일 장미 승급교육
- 10월 생일잔치
- 플라스틱 버릴 때 주방에서 나오는 것과 아이들 간식으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가 겹칠 경우 있어서 쓰레기가 넘쳐 아이들이 비닐에 버리기도 한다./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쓰레기를 묶어 놓고, 새 봉투를 끼워 놓기로 함.
- 반찬이 교사가 잘라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두 가지 정도는 주방에서 잘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다.

공람	이름											
	서명											

❍ 교사 짧은회의 회의록 사례

<table>
<tr><td>회 의 명</td><td colspan="3">2017년 10월 17일 교사 낮회의</td></tr>
<tr><td>일 시</td><td>2017년 10월 17일 월요일</td><td>장 소</td><td>유희실</td></tr>
<tr><td>참 석 자</td><td colspan="3">코뿔소, 물총새, 토끼, 나비, 반딧불, 연꽃, 민트</td></tr>
<tr><td>1.
보고
및
전달사항</td><td colspan="3">1. 연차 휴가 .
• 물총새 (1/2~1/5 연차)
• 반딧불 (10/30~10/31 연차, 11/29 반차, 11/30~12/1연차)
• 나비 (1/8~1/16 연차)
• 연꽃 (1/22~1/26 연차)

2. 행정감사 (10/19 목요일)
• 인원: 구의원 3명, 구의회직원 2명, 구청직원1명 (6명내 외)
• 시간: 오전 2시간가량
• 협조요청사항 공문 : 조사장소 따로 확보요망. 원장님 시설현황, 부모 참여, 교육관련 등 발표 준비 3분 (8부 준비)
• 준비 : 회계관련서류, 교사관련서류, 급식관련, 필요경비관련 등

3. 10/21 토요일 북가좌주민센터 마을 잔치
• 아이들 노래 공연 요청 들어옴. 토끼가 노래 준비시켜 주시기로 함. (20명 정도)
• 시간 : 1시 20분 ~ 40분 사이
• 교사 민트, 토끼, 코뿔소 참여.
• 곡 : 웃음꽃, 잠자리, 감홍시

4. 굿네이버스 가족그림잔치
• 다음 주 (10/23 월요일)까지 받아서 민트에게 전달

5. 긴나들이 (10/20)
• 맹꽁이열차 타고 이동.
• 따뜻한 물, 김밥 준비.
• 2시까지 돌아오기.(비용 16만 5천원)

6. 안산한마당 (10/27)
• 알토란쇠뜨기 방만 참여하기로 함.
• 숲체험 활동 : 나무 로케트 발사하기, 나무액자 사진찍기, 하늘거울 보기
• 도움 교사 2명 참여 (민들레, 무지개 참여)

7.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10/18 수요일)
• 대체교사 잘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

8. 졸업여행 (10/25~10/26)</td></tr>
</table>

		• 강화도 고인돌, 역사박물관, 보문사, 동막골, 전등사, 광성보 코스/ 숙소는 동명헌 • 차량, 기사 대동 • 두 끼는 매식, 두 끼는 해서 먹음, 부모님들이 반찬준비해주시기로 함. 9. 대청소 (10/28) • 시간 : 2시~5시 • 선풍기, 에어컨, 유리창, 화분 들여놓기 • 창문, 천장, 벽장문등 매일 청소 못하는 높은 곳 청소하기 • 놀이감 씻고 소독하기 10. 보육포럼 (10/17) • 마을 놀이터 이대로 괜찮은가, 편해문 선생님 기조 강연 후 모인 구성원 간의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임
공람	이름	
	서명	

② 교사 교육

❍ 교사 교육의 필요성

- 교육을 통해 교사가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부모, 아이들을 만나고 스스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소통교육(비폭력대화)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봄으로써 교사회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우리의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되며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더 많이 실천해 나가려는 마음이 생긴다.

❍ 교사 교육의 종류

- 어린이집마다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하는 교육으로 계획
- 역할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 교사회가 필요하여 개설, 참가하는 교육
- 각 개인이 원하여 참가하는 교육
- 교사대회,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재교육과정, 신입 교사 교육, 보수 교육, 주제 발표, 배움의 날, 강사 초청 교육, 주제별 외부교육 등

❍ 교사 교육 계획 사례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 사례

일정	교육명	주최	비고
3월	• 현장학교 2단계 (1년간 : 월 2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5월	• 식품위생교육	한국조리사 중앙회	
6월	• 친환경급식교육	가좌보건지소	
	• 원장직무연수(40시간)	교사자격관리사무국	
7월	• 공동육아여름교사대회(아이, 그리고 자람(서근원교수), 공동육아와미세먼지(퍼실레테이션방식), 국제교류워크숍 '타 도시보육원의1년', 바디버든 우리몸의 경고, 생태교육 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8월	• 유아발달에 따른 훈육지도	어린이집	
9월	• 조리사 위생교육	한국조리사 중앙회	
	• 생태나들이 교육	어린이집	
10월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80시간)	교사자격관리사무국	
12월	• 현장학교 2단계 (1년간: 월2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월	• 공동육아 겨울교사대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교사회 안전교육 사례

일정	교육내용	교육 주최	비고
2월	보육교직원안전교육(cctv운영관리, 성희롱과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3월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4월	영유아 하원 지도, 영아돌연사증후군, 영아소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어린이집	동영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어린이집	전달연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서대문보건소	집합교육
5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서대문보건소	집합교육
6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서대문보건소	집합교육
7월	재난대비교육(물놀이안전, 태풍)	어린이집	동영상
	아동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어린이집	자료
8월	결핵예방안전교육	어린이집	동영상

일정	교육내용	교육 주최	비고
	재난대비교육(폭염, 지진)	어린이집	동영상
9월	소방안전교육(조리실화재, 교실화재, 콘센트 과부)	어린이집	동영상
10월	아동숲 교육 현장 위기응급 대응교육	어린이집	문서자료
11월	소방안전교육(누전, 가스누출)	어린이집	동영상
12월	재난대비안전교육(폭설)	어린이집	동영상
1월	약물오남용교육	어린이집	동영상

③ 친목을 위한 활동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많고 하원시간이 늦어서 서로 얼굴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회의에서는 교육적인 이야기가 많은 반면 모꼬지나 뒷풀이 장소에서는 일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선후배 교사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관계가 아닌 서로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며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상황을 알게 된다.
- 회의는 평가와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기에 좀 더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 친목 활동 종류

구분	내용
동료 장학	•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가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갖기 • 통합활동을 할 때나 역할을 대체할 때 서로 느끼거나 궁금했던 것 이야기하기 • 선배가 일방적으로 후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고 배우는 기회
교사 문화 행사	• 서로 만날 시간이 부족한 교사들의 친목과 신뢰를 다지는 시간 갖기(1박2일 여행, 회의 후 뒷풀이) • 회식이나 연말 문화행사, 생일 축하 등으로 친목 다지기 • 교사로서의 정체성 다지기 : 스승의 날 모임, 워크숍 등

청소 상황의 갈등 사례

- 선생님들 간에 청소문제로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청소한 후 나오는 걸레와 청소기 사용 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필터 청소가 문제였다. 걸레는 사용 후 손빨래를 하는데 비누로 깨끗하게 하시는 선생님과 물로만 세탁하시는 선생님, 어린이집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쓰레기봉투를 정리하시는 분과 그냥 버리기만 하시는 분, 청소기 필터를 자주 청소하시는 분들과 거의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갈등이었다.
- 처음에는 마음을 내어 즐겁게 걸레도 빨고 쓰레기봉투도 비우고 청소기 필터도 청소하신 선생님들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니 속상함과 서운함이 많아져서 회의에서 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 결국 근무시간별 역할 분담에 오후 당직교사의 일로 가져가게 되었다.
- 작은 거 하나까지 역할 분담으로 넣지 않고 조금씩 마음을 내면 알아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 늘 하시는 분들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들 간의 갈등으로 오고 이러한 청소 같이 티가 안 나는 소소한 갈등은 교사회가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데 교사간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교사회 분위기를 해하게 된다.
- 물론 서로 알아서 서로의 힘듦을 알고 마음을 내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작은 것도 잘 짚는 꼼꼼한 역할 분담이 교사 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2) 부모와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서 교사회와 부모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교사회와 부모회와 함께 아이들의 보육을 논의하며, 협력하며 운영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공동체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친절하게 부모들과 소통에 응하고 있고, 부모들은 교사들이 매우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이 부모들과 소통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등하원시 소통** : 교사들은 등하원시 오늘 지낸 에피소드를 들려 드리며 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긴밀도가 있다. 그러나 교사는 시간차 출퇴근을 하고 있고, 맞벌이부모 특성상 터전에 매일 오지를 못해서 교사와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다. 등하원시 부모 대신 오시는 조부모님이나 등하원 도우미 분들과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꼭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그날 퇴근하기 전에 전화통신으로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

❍ **날적이** : 날적이는 매일의 아이들의 생활을 부모들과 나누며 소통하는 가정통신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날적이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긴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며 답신 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도 가끔 있다. 그래도 영아방은 매일 날적이가 오가고 있다.

○ **면담** : 정기면담은 1년에 2회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다.

○ **방모임** : 격월로 이루어지는 방모임에서는 여러 아이들의 또래관계나, 어린이집 생활 등을 부모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방모임이 시시콜콜 집안 이야기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던 것과 비교하면 푸른숲의 방모임은 부모들 서로 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교사회 역시 교사 대 학부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 **잔치, 행사** : 어린이집의 모든 잔치나 행사는 교사와 부모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연말 해보내기잔치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때 부모들도 관객으로 있지 않고 함께 출연하여 잔치를 즐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열심히 주연으로 참여할 때 부모들은 부담감은 있어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원장과 교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7) 교사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 교사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사 교육과정이다.

○ 교사들은 아이들과 만날 때 도움도 되고 과제도 던져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

○ 교사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입 교사 교육

○ 처음 시작하는 교사가 안내받아야 하는 신입 교사 교육은 선배 교사들이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으면 더욱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된다.

(2) 경력 교사 교육

○ 교사로서 경력이 쌓이면 교육에 대한 고민도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의 경력에 따라 그때그때 가장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경력 교사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역할에 따른 교육

○ 역할에 따라 고민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원장, 주임(원감), 조리사, 평교사 등 맡은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 성장체계' 모형

교사 성장체계 : '교사교육'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타율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를 말한다.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 내용

- 단계별 교육(현장학교) : 기초과정(1단계), 심화과정(2단계), 전문과정(3단계)
- 개방형 교육 : 교사대회(여름·겨울), 단기교육 및 특강, 학습소모임(세시와 한해 흐름, 놀이와 노래, 생태나들이, 교육철학, 성교육 등)
- 직무교육 : 신입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구분	[기초과정] (1단계)	[심화과정] (2단계)	[전문과정] (3단계)
일정	• 매년 1~2회	• 매년 또는 격년	• 2~3년 마다
대상	• 신입교사, 일반인, 부모	• [기초과정]을 수료한 경력 2~4년차 교사	• [심화과정]을 수료한 경력 6~8년차 교사
기간	• 3개월 과정 • 주 1~2회(평일, 주말)	• 1년 과정 • 월 2회(평일, 주말)	• 1년 과정 • 월 2회(평일, 주말)
인원	• 25~30명 내외	• 25명 내외	• 20명 내외
진행 방식	• 강의, 담금질, 현장연수	• 강의, 워크숍, • 학습소모임과 연결한 팀티칭, 교육사례 발표	• 강의, 토론, 팀별 주제연구, 현장방문, 주제연구발표
교육 내용	• 공동육아의 기초 • 공동육아 교육이론 • 공동육아 교육실제	• 공동육아교육과정, 하루흐름의 의미 • 세시와 한해 흐름 • 생태나들이 • 놀이와 노래 • 장애아통합교육 • 표현예술교육 • 교육활동의 구성	•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이해 및 재구성(매해 주제를 정해 강의 구성)
목적	• 공동육아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이론적 기초 및 교육과정 실제 습득	• 교육활동의 실제를 직접 경험을 통해 관찰, 연구, 숙달 과정을 거치며 공동육아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심화함	• 공동육아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교육전문가로 성장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교육 사례

구분	내용
신입조합원 교육	◆ 조합생활을 시작하는 부모들이 낯선 조합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하루라도 빨리 공동체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교육소위원회의 주관 아래 선배조합원들과 교사가 같이 참여
	◆ 협동조합에 가입한 후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진행
신입조합원 오리엔테이션	◆ 가입 2주 전에 조합생활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 오리엔테이션의 주제 : 해당 조합의 역사와 조합 생활, 조합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조합원 생활 수칙, 부모 참여 활동, 어린이집 하루일과와 교육활동 등
가입 후 신입조합원 교육	◆ 어린이집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교육 ◆ 협동조합의 여러 제도와 규칙, 문화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 ◆ 신입부모들이 조합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조합원교육	◆ 조합의 생애주기, 조합원의 욕구, 조합원의 세대교체에 따라 적절한 부모교육을 교육소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진행
설립 초기 (1년~2년)	◆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틀을 세우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
	◆ 교육주제의 예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협동조합 공동체의 특성, 관계 맺기, 의사소통, 어린이집 교육활동의 실제,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흐름
안정기 (3년~5년)	◆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알고 지역사회와 조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
	◆ 교육주제의 예 : 생활문화교육, 생태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 별명과 반말문화, 먹을거리, 부모참여 활동, 벌금제도, 장애아통합교육, 사교육, 특기교육
세대교체기 (6년~10년)	◆ 조합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시기 ◆ 조합이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로 세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변해야 할 할 점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
	◆ 교육주제의 예 : 공동체의 원칙과 운영원리, 사람과의 관계 맺기, 조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재구성기 (설립 10년 이후)	◆ 조합의 역사로부터 조합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와야 하는 시기 ◆ 조합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교육이 필요 ◆ 조합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선배들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교육 필요
	◆ 교육주제의 예 : 보육의 공공성,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참고 사이트

보육 단체

보건복지부 www.mw.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seoul.childcare.go.kr
서울시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child.seoulwomen.or.kr
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육아정책연구소 www.kicce.re.kr

관련 단체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www.koreaeducare.or.kr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www.ncare.or.kr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kseca.or.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www.nodong.org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www.gongdong.or.kr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cafe.naver.com/ccscc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V.2

인 쇄 일 2019년 2월

발 행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201호
T. (02) 323-1692 / F. (02) 323-1695
http://www.gongdong.or.kr
gongdong@gongdong.or.kr

비매품